

2020-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20-14

사회적 가치 지향에 대한 참여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인식연구

채진해



**사회적 가치 지향에 대한
참여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인식연구**
-강동 공동체정원을 대상으로



연구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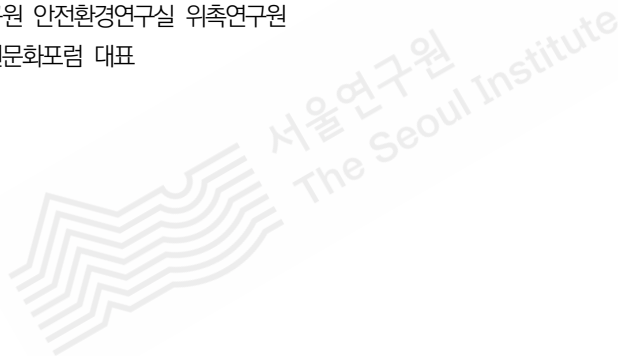
채진해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연구진

허윤경 Latz+Partner 도시조경설계사무소 프로젝트 디자이너

이현정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위촉연구원

김영일 강동정원문화포럼 대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 개요	1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2_연구 내용 및 방법	7
02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정원	9
1_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9
2_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14
03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24
1_강동 공동체정원 현황	24
2_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25
04 주체별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	31
1_인터뷰 조사	31
2_주체별 사회적 가치 평가 조사 내용	34
3_주체별 사회적 가치의 의견 및 평가 분석	38
05 집단 간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45
1_설문 조사 개요	45
2_집단 간 공동체정원의 이해 및 예상되는 갈등 요인	46
3_집단 간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55
06 결론	60

1_결과	60
2_정책 제안	62

참고문헌	67
------	----



표 목차

[표 2-1] 사회적 가치의 특성	12
[표 2-2]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 및 평가 지표	13
[표 2-3] 도시녹지의 기능	14
[표 3-1] 주요 공간 프로그램	26
[표 3-2] 주요 시민참여 프로그램	28
[표 4-1] 인터뷰 개요	32
[표 4-2] 인터뷰 질문 유형 구분	37
[표 5-1] 세부 요소별 독립 표본 t 검증에 따른 집단 간 차이	57
[표 5-2] 회귀분석 결과	58

그림 목차

[그림 1-1] 사회적 가치와 도시 공공공간의 역할	2
[그림 1-2] 주체 간의 인식 차이 발생	4
[그림 1-3] 예방적 갈등 대응 필요	5
[그림 1-4] 연구의 목적	6
[그림 1-5]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6
[그림 1-6] 분석의 틀	8
[그림 1-7] 연구 방법	8
[그림 2-1] 사회적 가치의 정의	10
[그림 2-2] 도시녹지의 사회적 가치	15
[그림 2-3]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21
[그림 2-4]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22
[그림 3-1] 대상지 위치도	24
[그림 3-2] 강동 공동체정원의 공간구성	25
[그림 3-3] 강동 공동체정원 생태적 가치	26
[그림 3-4] 강동 공동체정원 여가 휴양적 가치	27
[그림 3-5] 강동 공동체정원의 상징적 가치	28
[그림 3-6] 강동 공동체정원 운영 조직 구성	30
[그림 3-7] 강동 공동체정원의 공유재적 가치	30
[그림 3-8]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종합	30
[그림 4-1] 인터뷰 대상 및 주요 질문	33
[그림 4-2] 인터뷰를 통해 본 주요 의견 차이 - (1) 외부와의 의견차	39

[그림 4-3] 인터뷰를 통해 본 주요 의견 차이 - (2) 내부에서의 의견차	40
[그림 4-4] 인터뷰를 통해 본 주요 의견 차이 - (3) 방향성에 대한 의견차	41
[그림 4-5]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42
[그림 4-6]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인터뷰 내용 종합)	44
[그림 5-1] 설문개요	45
[그림 5-2] 응답자 특성	47
[그림 5-3] 참여 주민의 공동체정원 참여 방식	48
[그림 5-4] 공동체정원의 참여 동기 및 이유	48
[그림 5-5] 공동체정원 활동의 지속적 참여 이유	49
[그림 5-6] 참여 만족 정도 및 요인	49
[그림 5-7] 공동체정원 참여의 어려움 및 참여자의 주요 역량	50
[그림 5-8] 비참여 주민의 강동 공동체정원에 대한 인지 여부	50
[그림 5-9] 비참여 주민의 강동 공동체정원에 대한 인식 및 참여하고 싶은 활동	51
[그림 5-10] 비참여자의 다른 공동체 활동 참여 내용	52
[그림 5-11] 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의 종합	53
[그림 5-12] 집단 간 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	53
[그림 5-13] 집단 간 갈등 발생 주체 인식	54
[그림 5-14] 집단 간 갈등 해소 방안	54
[그림 5-15] 사회적 가치 요소별 평균 비교	55
[그림 5-16] 집단 간 사회적 가치 평균 비교	57
[그림 5-17]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59
[그림 6-1]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3
[그림 6-2] 독일의 주민참여 활동 사례	64
[그림 6-3]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도입(안)	65
[그림 6-4] 도시공원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식 및 관련 규정 도입(안)	66

01. 연구 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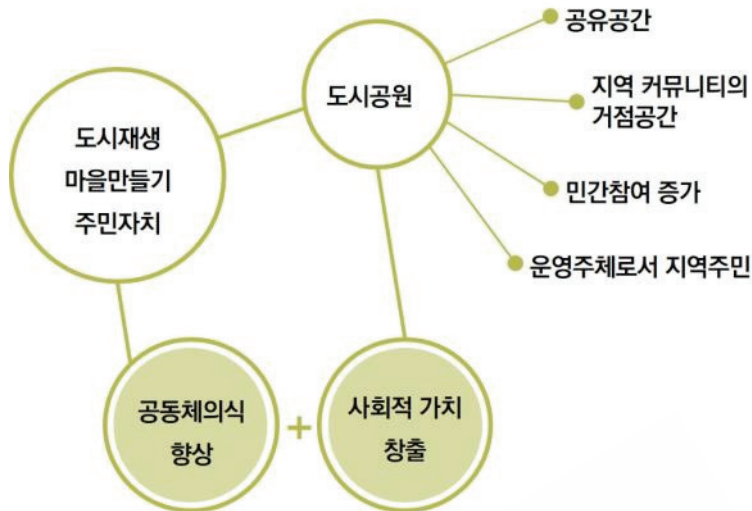
1)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공간 역할 증대

최근 사회 전 분야에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민간기업도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기업의 큰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https://www.econovill.com>, <https://ksif.kr/?p=12309> 참조). 이에 구체적인 실천 및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법안을 제안하였다(<https://www.eroun.net> 참조). 이미 도시공간에서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도시텃밭 활동 및 공동체정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2010년 이후로 공동체 의식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다.

도시공원은 골목길이나 마을과 같이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공간은 아니지만 공유공간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최근 민간위탁 등으로 인해 민간참여가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운영 주체로 등장하는 등 도시공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과 더불어 도시 텃밭과 같은 자발적 주민참여 활동은 도시에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나타난다(노희영, 2012).

- 기능 중심 공간 조성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 공간으로 패러다임 변화
- 공동체 의식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공공공간 사례 증가
- 주민 주도형 공원 조성에 대한 활동과 기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도시 공공공간의 역할 증대



[그림 1-1] 사회적 가치와 도시 공공공간의 역할

2) 주체별/집단 간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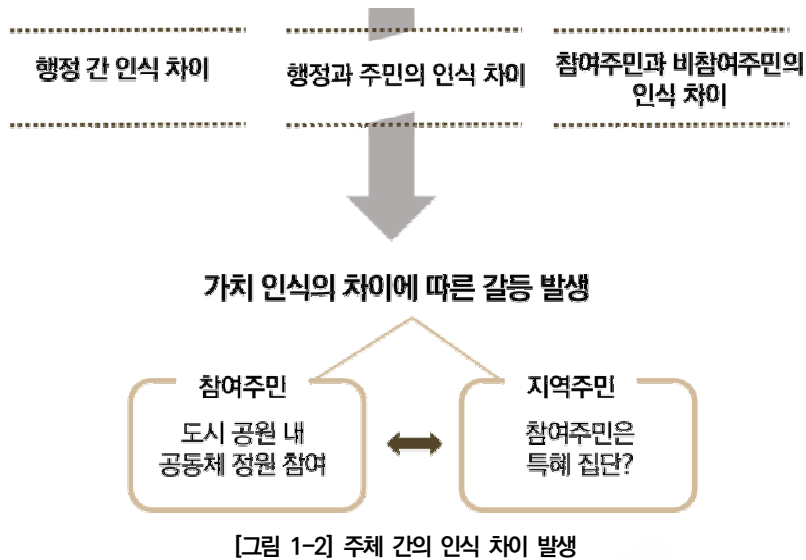
도시 공공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에는 여러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주민 간의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행정 간, 행정과 주민 간, 참여한 주민과 참여하지 않은 주민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 간의 인식 차이는 주로 사업 전에 어떤 공간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강동 공동체정원의 경우 당초 도시 텃밭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재 공동체정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행정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공동체정원이라는 대상지는 대규모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 간의 의견 차이에 그칠 수 있지만 이는 텃밭이나 정원이라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과 연결된다. 둘째는 행정과 주민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은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큰 방향성의 사업의 성과를 내야 하는 목표가 있는 반면 참여하는 주민들은 참여주민들의 수요와 노력 그리고 역량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는 같은 목표일지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상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역할에 대한 분배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목표가 같을지라도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사업

의 결과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 그리고 주민참여라는 것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셋째는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사이의 인식 차이이다. 도시공원의 주민참여는 내부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지역주민과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도시공원 내의 공동체정원이라 함은 공공공간의 특정 참여주민들의 공동체 집단에 특혜를 받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이민우 외, 2016). 실제 공동체정원 조성 전에는 도시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용자는 약 340명이었다. 도시텃밭에서 공동체정원으로 조성되면서 텃밭 이용자 중 일부는 공동체정원 조성이 일부 단체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이를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종합해보면 각각의 주체별 인식 차이로 비추어질지라도 공공의 장소를 두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른 행정 간의 인식 차이는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의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강동 공동체정원에서는 민원에 대한 해결은 당사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수의 주민이 공동체정원의 가치에 동의해 주어 인식 차이를 좁혀왔다. 이를 통해 주민들 간 소통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과정의 필요성 및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도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행정, 비참여 주민과 참여 주민 모두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주체별로 입장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불가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상적인 의견 차이는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그림 1-2].

- 행정 간, 행정-주민, 참여 주민-비참여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인식 차이
- 가치 인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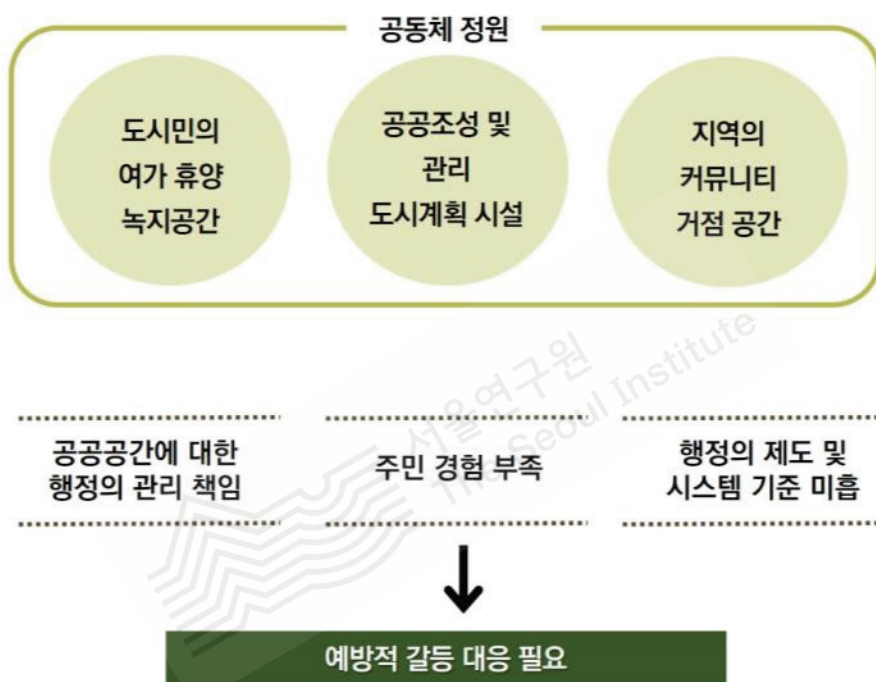
3) 예방적 갈등 대응 필요

도시공원은 지역 내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녹지공간이라는 점과 공공이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가 물리적으로 인지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에서 주민 주도형 주민참여 사업은 다른 공공공간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며, 참여 형태 및 활동 또한 자원봉사에 기반한 식재, 미화 등으로 한정적이다 보니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등의 사회 변화로 정보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장원경 외, 2018).

이러한 측면에서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례를 볼 때,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주도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권경득 외, 2015)함으로써 현재 시점까지 갈등의 요인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지속해 온 점에 있어서 도시공원에서 주민참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여 주민 및 주민조직의 리더, 그리고 행정 또한 경험과 사례가 부족한 만큼, 본 사례를 통해 공원에서의 주민참여가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권경득 외, 2015)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과 요구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와 제약을 밝힘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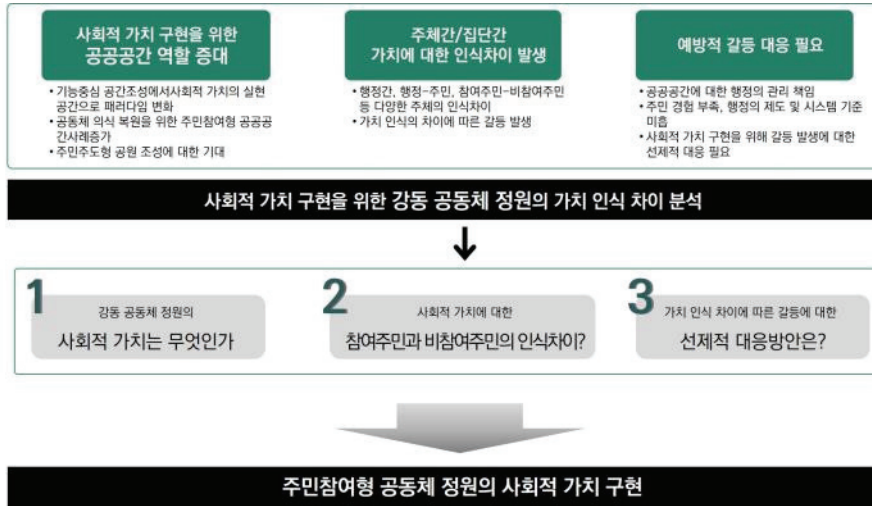
인식 차이를 구조화하고 사업의 본격화 단계에 접어든 강동 공동체정원을 선도적 사례로서 고찰함으로써 예방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3].

- 공공공간에 대한 행정의 관리 책임
- 주민 경험 부족, 행정의 제도 및 시스템 기준 미흡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갈등 발생에 대한 예방적 대응 필요



[그림 1-3] 예방적 갈등 대응 필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정원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주민과 비참여 주민 간의 공동체정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그림 1-4]. 이에 도시공원 내 자발적·주도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 암사 공원 내의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정원이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사회적 가치 구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1-5].



[그림 1-4] 연구의 목적



[그림 1-5]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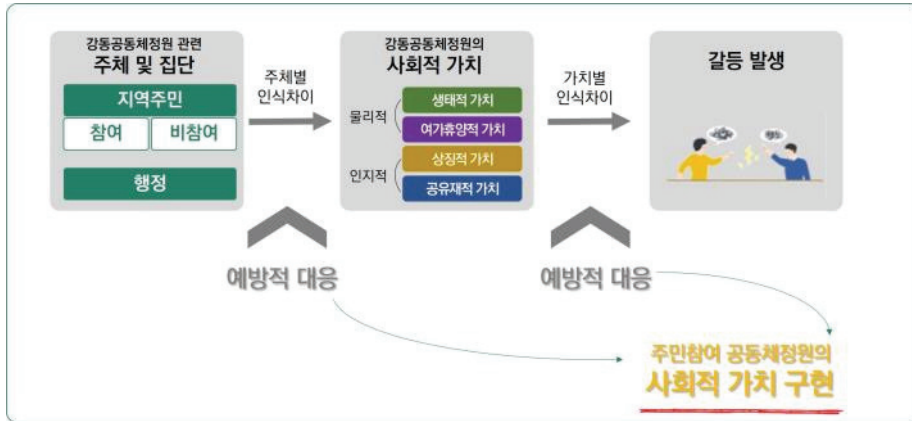
공동체정원에 대한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공동체정원의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공동체정원이 발전하게 된 배경과 공동체정원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제도 및 법률, 평가지표 등을 살펴보고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앞서 선행된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서울의 강동 공동체정원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물리적 가치와 인지적 가치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물리적 가치는 다시 생태적 가치와 여가 휴양적 가치로 나누어 구체화하고, 인지적 가치는 상징적 가치와 공유재적 가치로 나누어 강동 공동체정원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에 따른 고유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주체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강동 공동체정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주체별로 공통된 인식과 상이한 인식을 종합하여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주체가 예상하는 갈등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강동 공동체정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해 예방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문헌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도출하여 강동 공동체정원의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갈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주체별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지, 어떤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였으며, 참여 주민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소와 비참여 주민이 예상하는 갈등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서 실시한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강동 공동체정원이 구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잠재적 갈등 요인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종합하였다. 나아가, 가치 인식에 따라 구체적인 예방적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정원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1-6].



[그림 1-6] 분석의 틀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 현장 및 인터뷰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정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인터뷰 조사는 2020년 12월~2021년 1월, 행정, 참여 주민, 비참여 주민 각 주체별 2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 고찰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항목으로 구성하고 2021년 3월,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각 51명씩 총 102명을 대상으로 구글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 도구 SPSS 21.0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교차분석, 독립 표본 T-tes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7].



[그림 1-7] 연구 방법

02.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정원

1_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1) 사회적 가치 개념에 대한 논의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은 경제적 관점에서 먼저 시작된다.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해 측정한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통해 단순하고 효과적인 지표로서 경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왔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가격’만을 측정한 지표로 ‘사회적 가치’는 반영하지 못했으며, 높은 GDP 지수가 높은 행복지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삶의 질 또는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이재열, 2019).

사회적 가치는 명확한 이론적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범적이고 실천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치나 시장경제에 놓인 기업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 공공부문에서의 공공가치가 사회적 가치와 연관이 있다. Walzer의 다원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사회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뤄지는 권리와 자유, 권한 및 기회 그리고 소득과 재산 등과 같은 가치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가치는 다원주의적 관점에 따라 공동체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의미가 부여되고 그 가치가 공유된다. 이처럼 ‘공동체 의존적’인 가치는 사회적 가치가 된다(임의영, 2009).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적 편익에 대한 관심을 넘어 타인과 공동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이다(이승현, 2016). 박명규(2018)는 사회적 가치는 연대, 책임, 관용, 포용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과 혁신, 공동체와 공공성,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재열(2018)은 사회적 가치는 사회성을

전제로 하는데, 사회정의, 연대감, 평등, 인간적 존엄성을 사회적 가치의 요인으로 보고 이 요인들을 핵심으로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를 새로운 공동체로 보았다.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는 이렇듯 타인과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이며,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지역사회 내에 공유된 것으로,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사적 가치를 추구한 결과 사적 편익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의 편익으로 나타난다(김정옥, 201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2017)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추구해야 할 정부 운영의 국정 철학 및 핵심 가치라고 말한다 [그림 2-1].



[그림 2-1] 사회적 가치의 정의

2) 사회적 가치의 특성

(1) 공공성

사회적 가치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성과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하며,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내재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가 사적 편익보다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누구나 사회적 가치에 접근할 수 있고, 복수의 가치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가치가 생성된다(齋藤純一, 2009; 이승현, 2016에서 재인용). 공동체를 지향하며 개인과 지역사회 등에서 생겨난 사회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공공에 의해 발현되는 사회적 현상이 된다.

(2) 유동성

가치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공유하게 되고, 사회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사회적 삶의 영역이 다양하므로 각각의 영역이 추구

하는 사회적 가치도 다르며, 각 사회 및 영역에서 지향하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 저마다 다른 원칙으로 사회적 가치가 분배된다. 이는 가치가 불변의 상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념, 삶의 방식이 변하면 사회적 가치의 내용이나 가치의 분배 방식에 대한 생각이 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임의영, 2009).

(3) 다양성

김광기(2007)는 현대에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하며, 공동체 내에서 단일의 가치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Walzer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사회 및 시대마다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는 유동적 성격을 가지면서, 하나의 규범적인 가치가 아닌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는 다양성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는 개인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 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이승현, 2016).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며, 지역사회에 공유된 사회적 가치와 또 다른 가치가 대립할 경우 갈등이 형성될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특성에 대해 Walzer의 주장과 국내외 선행연구(김광기, 2007; 임의영, 2009; 김정옥, 2010; 이승현, 2015)를 종합하면 사회적 가치의 의미는 공동체에 의해 부여되며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개방되어 있는 공공성을 가지며, 절대 불변의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는 시대와 사회의 주체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양한 가치관이 함께 공존하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갈등 유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2-1].

[표 2-1] 사회적 가치의 특성

공공성	▷ 개인보다는 타인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 ▷ 사적 편익보다 지역사회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가치 추구 ▷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복수의 가치와 의견 사이에서 생성 ▷ 자연스럽게 공공에 의해 발현되는 사회적 현상	김정욱, 2010 임의영, 2009 齋藤純一, 2009 김광기, 2007 이승현, 2016
유동성	▷ 불변적인 상수로서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공간적 제약을 받으며 공동체 특성에 따라 가변적 ▷ 사회구성원들의 신념이나 삶의 방식이 변하면 사회적 가치의 내용이나 분배 방식에 변화 가능 ▷ 모든 도덕적, 물질적 세계를 관통하는 기본 가치들로 이루어진 단일 집합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	
다양성	▷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단일의 가치만 존재하지 않음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가 발현됨 ▷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 관계 형성	

3)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 요소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이 커졌다. 2017년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하였다(김상아 외, 2020). 정부 업무 평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 연구를 진행한 윤태범 외(2017)는 사회적 가치의 구성 요소를 12개 영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평가 지표를 구축하였다[표 2-2].

[표 2-2]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 및 평가 지표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보호		
안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및 생활환경의 유지		
노동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일자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건강복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지역경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		
공동체 복원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책임윤리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참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세부 평가 내용		세부 평가 내용	
인권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노인의 사회문화적 생활 참여권 보장
	사회적 신분제에 따른 차별 시정		여성의 성평등 실현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한 정보기본권 보장		청소년(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안정적이고 존엄이 확보되는 주거생활의 보장		사회적 약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안전	공공부문의 안전 역할 강화	지역경제	사회적 약자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주민자치시스템 구축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지역경제 선순환
노동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보장 / 실업급여 대상 및 수준 확대 / 노동자 권익 보호 향상		지방재정 역량 제고
일자리	일자리의 양적 확대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시스템 구축
	일자리의 질적 개선	책임 윤리	주민자치 역량 제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고용 확대		사회적 책임 경영 확산
	최저임금 인상		기업 윤리 경영
건강 복지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강화	환경	오염 방지 강화
	의료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확대
	서민(신혼부부, 청년 포함)의 주거환경 완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권 강화		자연환경 보호 및 복원
상생 협력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참여	시민참여 기회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역량 강화		정보공개 확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처: 윤태범 외, 2017

2_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1) 도시 녹지의 기능 및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란 ‘타인과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이므로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 공간에서 녹지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공원과 근교산은 도심 또는 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도시 삶의 주요 녹지 인프라를 형성한다. 이에 국내외 학자들은 도시 녹지 및 근교산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 정의하였다(Rosol, 2006, 이승현, 2016: 채진해, 2016: 채진해 외, 2021). 채진해(2016)는 근교산의 가치를 도시 내의 공간으로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승현(2016)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채진해 외(2021)는 근교산의 가치를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도시녹지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 Rosol(2006)는 역사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단계는 도시화 및 산업화가 심화되었던 20세기 초 Wagner(1915)의 이론에 따라 도시녹지를 장식적 기능을 하는 녹지와 건강적 기능을 하는 녹지로 나누고, 다시 건강적 기능을 생태적 기능과 이용적 기능으로 나누었다. 이는 두 번째 단계에서 20세기 후반의 Nohl(1984)에 따라 생태적 기능의 보장, 이용자의 자기계발, 활동 공간의 확대, 미학적 기능의 확대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Boching and Selle(1992)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생태적 기능,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으로 종합하였으며, 생태적 기능에 대해서는 동식물 서식처, 토지 보호, 수자원 보호, 도시 기후로 세부적으로 나누고,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휴식, 문화적 및 미학적 기능, 사회화 기능과 소통의 기능으로 나누었다.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는 도시녹지가 경제적으로 입지 결정 요인이 되며, 노동과 생산의 기능, 향후 도시 발전을 위한 예비 공간 확보의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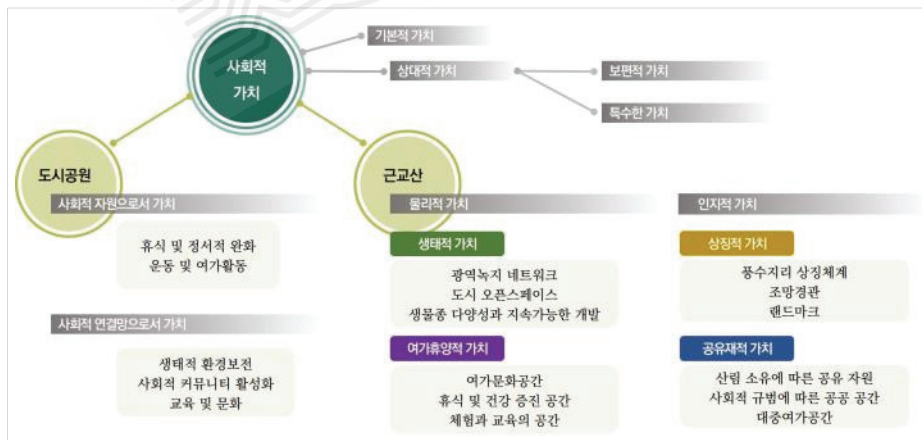
[표 2-3] 도시녹지의 기능

건강적 녹지		장식적 녹지	Wagner, 1915	
생태적 기능	이용적 기능			
생태적 기능의 보장	이용자의 자기계발	활동 공간의 확대	미학적 기능의 확대	Nohl, 1984
생태적 기능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Bosching and Selle, 1992

출처: Rosol, 2006

이승현(2016)은 도시공원이 가지는 기능을 여섯 가지로 종합하고, 이 중 대다수의 도시민이 지향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기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는 크게 개인적 차원과 지역사회 차원의 가치로 나뉘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휴식 및 정서적 완화’와 ‘운동 및 여가 활동’의 가치가 있고, 지역사회의 차원에서는 ‘생태적 환경 보전’과 ‘사회적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 및 문화’의 가치를 가진다. 이를 다시 도시공원의 기존의 기능과 확대 후 기능으로 분류한 후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연결망으로서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였다. 채진해(2016)는 근교산을 대상으로 다원적 가치를 연구하면서 근교산은 크게 물리적 가치와 인지적 가치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물리적 가치로서 생태적 가치, 여가 휴양적 가치를 가지고, 인지적 가치로서 상징적 가치, 공유재적 가치를 가진다. 근교산이 가지는 이 네 가지 가치 요소는 각각 다시 세 가지 요소들로 구체화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공간을 누구와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공유된 가치가 주체 간에 동일하게 인식되는지가 중요하므로 공유재적 가치와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도시녹지의 기능과 가치를 나누는 세부적인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생태적 기능 및 여가 휴양적 기능에서 비롯하는 물리적 가치와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공유재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2-2].



출처: 채진해, 2016; 이승현, 2016, 저자 재편집

[그림 2-2] 도시녹지의 사회적 가치

2) 공동체정원의 발전 과정

(1) 도시농업과 공동체정원

현재 공동체정원의 유래는 뉴욕의 커뮤니티 가든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Appel et al, 2011). 하지만 Dzionara(1998)는 도시 정원의 현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집트나 로마의 고대 고도화된 문화권의 정원 문화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여러 수도원에서는 몇 세기 전부터 행해왔다(Hauserund Heyer 2010; Heckmann 1998).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동체정원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동체정원에 앞서 발전했던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이 특히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유럽의 시민들은 도시의 빈 공간에 감자와 콩 등을 심으며 자급자족을 했는데, 1940년대와 1950년대 초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다시 부흥하며 자급자족경제의 중요성은 사라졌다. Holl and Meyer-Renschhausen, 2000; Glaser, 1998). 19세기에 독일에서는 도시농업의 초기 형태인 “Armengärten¹⁾”이 생겨났는데, 이 정원은 자급자족의 역할과 함께 과도한 브랜드 소비를 막는 역할을 했다(Frank, 2011). 이후에 도시농업을 통한 자급자족 정원은 전쟁 후 피폐화된 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었고, 노숙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Glaser, 1998). 또한 두 번의 전쟁으로 위기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많은 가정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Frank, 2011).

Migge는 20세기 초 도시 내 녹지공간이 농업 생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주장하였다(Steenbergen and Reh, 2011). 도시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Migge는 도시농업이 실업, 식량 부족, 쓰레기 처리 등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여겼다. 이러한 계획으로 독일 내의 정원들(Domestic gardens)과 도시 텃밭들(Allotment gardens)은 도시 내 식량 생산을 가장 작은 단위로서 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산업 생산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직화를 주장한 ‘테일러니즘(Taylorism)’에 대해 Migge는 철저한 노동 분업이 사람을 생산의 한 요소로 전락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극단적인 분업으로 인한 비인간화는 무력감, 허무감, 소외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인간화에 대한 대안으로 Migge는 실생활에서 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그의 의견으로는,

1) 19세기 초 인구증가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빈곤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던 자급자족정원으로 현재 독일의 할당 농장인 도시농장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 19세기 중반에는 독일 여러 도시와 특히 베를린에서 다양한 형태의 Armengärten이 생겨났다(Jensen and Wulf, 1991).

사람들이 주거지 가까이에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음식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²⁾.

공동체정원에 앞서 존재한 도시농업은 경제 위기나 전후 상황에서 자급자족의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농업 및 정원 활동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과 어려운 상황에서 삶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Glaser, 1998).

(2) 새로운 도시정원에 대한 요구

1960년대 말, 1970년 초 뉴욕은 경제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공터가 된 주거지 터는 쓰레기 더미들로 쌓이고 마약 거래의 현장이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들은 공터를 녹지화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커뮤니티 가든 운동이 꽃피울 초석을 만들었다(Appel et al., 2011). 새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혁신적인 정원 이용 형태를 통해 공공의 녹지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공동 작업과 도시 구역을 함께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기회에 있다. Madlener(2009)는 이러한 정원 활동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았다. Bütikofer(2012)는 현대의 새로운 도시정원을 이끌어가는 세대는 지역의 농업 생산물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생산과 이웃과의 사회적인 유대감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현대에는 도시농업이 도시 텃밭과 도시 정원, 공동체정원 등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새로운 도시정원은 연대와 소통에 중심이 있고, 지속가능성과 지역성, 친환경적인 것을 추구한다.

(3) 도시 텃밭과 공동체정원의 차이

2차 대전 이후 도시 텃밭은 개인 정원을 대신하여 대도시 시민 누구나 환영할 대안이였다(Harth and Scheller, 2010). 하지만 도시 텃밭이 주로 도시 외곽에 자리하며 분양을 통해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정원 활동은 연대적이고 참여적인 특성을 가지고, 도시 공간의 일부로서 이해되었다(Müller, 2011).

²⁾ Migge는 "Jedermann Selbstversorger: 누구나 자급자족"을 주장했다(Steenbergen and Reh, 2011).

3) 공동체정원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

(1) 공동체정원의 특성 - 자발성과 공공성 지향, 생태환경의 조성

공동체정원의 가장 큰 특성은 정원의 형태로 이용되면서 공공성을 띠고 공동으로 장소를 가꾸며 공유하는 것이다. Rosol(2006)은 주민들이 정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런 점이 단순한 주민참여형 녹지 조성 사업과 구분되는 점이며, 또 개인적 권리가 강한 도시 텃밭의 성격과도 다르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공동체정원이란 공동으로 또 자발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정원 또는 녹지시설, 공원이며 보편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독일의 설문조사 위원회(Enquete-Kommission)는 시민참여에 대해 자발성을 바탕으로 물질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참여의 특성이 공동체정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공동체정원은 이러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여 조성되고 유지와 관리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오픈 스페이스와 차별성을 보인다.

독일의 정원 연합 Gartenpolylog (Verein Gartenpolylog, 2009)는 공동체정원의 특징을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다양성에 두고 공동체정원의 기능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생태적, 주관적으로 나누었다. 이 연합의 정의에 따르면 공동체정원은 평소에 만나기 힘든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정원의 일상과 조직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도시 공간을 주체적으로 조성하고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간이다. 또한 공동체정원은 익명성과 사회적 차별은 지식의 나눔과 소통으로 해소할 수 있고,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는 사회적 공간이며, 정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경험하고 새로운 정원 지식과 책임감, 자신감을 배우는 교육적 공간이 된다. 더불어 생태적 공간으로서 주변의 자연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고 도시 공간을 경작하고 생태환경을 조성하며, 곤충, 나비와 조류의 새로운 서식지를 만든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은 세상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정의하면서 고유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공동체정원은 주관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듯 새로운 형태의 도시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정원은 개방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도시농업 형태의 도시 텃밭(Allotment Garden)과 차이가 있으며, 도시 공간과 구분되는 곳이 아니라 도시 녹지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정원은 도시의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이바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고 운영, 유지가 이루어고, 지역의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공동체정원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

① 공공성과 개방성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참여와 결속

공동체정원은 참여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Müller(2011b)는 정원이 교육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웃을 사회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정원이라는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함께 운영하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 버려지고 무의미한 장소를 다시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공동체정원이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생기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에 일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Iles(2005)는 공동체정원을 통해 사회 전체에는 공동이 조성하고 관리하는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고, 개인에게는 발전의 기회를 준다. 공동체정원의 개방성은 화합과 단결을 이루게 해주고,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높여 공공으로의 참여를 유도한다.

Holl and Meyer-Renschhausen(2000)은 정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네의 버려진 터에 생기가 돌고, 동네가 활발해지는 것을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이웃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주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정원의 개방성을 통해 통합을 촉진하고, 고립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Borgstedt(2011)은 공동체정원이 도시민이 자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정원 구성원들끼리 규칙과 한계를 정하고 자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부의 조건과 요구를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규정을 구체화하고 정의하면서 가까운 주변 환경에 집중하게 된다. 즉 자신만의 능력과 자격, 지식과 경험을 자원으로 삼아 자치적 경영을 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창출

현대인들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일상과 다른 곳에서 사회적으로 재정착할 곳을 찾는다. 최근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도시 공동체정원의 경향에 대해 트렌드 학자 Borgstedt(2011)은 리그라운딩(Re-Grounding), 자치성, 감성이라는 세 가지 사회문화적 흐름으로 이야기한다. 도시민은 공동체정원에서 상호 간의 신뢰와 소속감을 찾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회적인 재정착을 경험한다. 이렇게 공동체정원은 사회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Social Kapital)을 통해 장려되고 강화된다. OECD(Healy und Coté, 2004)와 Putnam (2001)의 정의에 따르면 함께 공유하는 규격과 가치, 신념 등이 사회적 신뢰를 장려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사회적인 근거리에서 영향력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립감이나 소외감이 감소하는 작용을 한다. Bittner et al.(2008)는 정원을 만들며 감정과 시간,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통합과 연대를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자본을 확장시키거나 이미 확대된 사회적 자본의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공동체정원은 비공식 경제 활동이다. 정원을 가꾸는 행위가 자급자족의 관점에서 각자의 필요에 의해 일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Skolka(1984)은 공동체정원을 봉사 활동의 범주의 넣기도 하지만 근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공동체정원 활동의 생산물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공동체정원 멤버가 아닌 공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공동체정원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대는 공동체정원이 교육의 장이 되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임을 나타낸다. Madlener(2008)는 학습의 장으로서 베를린 공동체정원에 대한 연구에서 학급 정원 또는 공동체정원 형태의 정원이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경험하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 밖의 학습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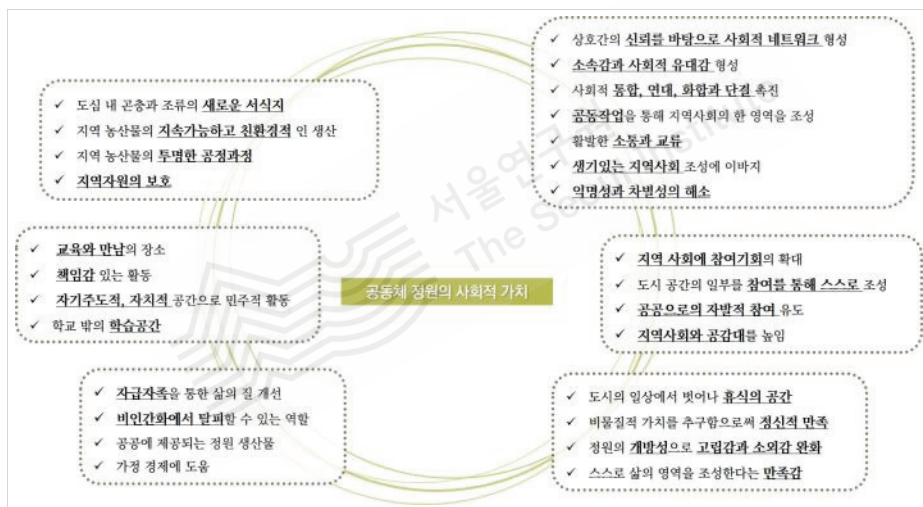
③ 정서적 만족과 안정

공동체정원은 동시에 복잡하고 피로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도시민들이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게 감각을 깨우는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Borgstedt(2011)는 공동체정원을 감성의 키워드로 설명한다. 현대인은 독창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크며, 구매하는 상품이 공정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크다. 공동체 공원에서 자연과 마주하는 것을 통해 자연적인 것과 본연의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서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 또한 도시 공동체정원은 외부의 개입 없이 친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스스로 삶의 영역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일상의 복잡함을 덜어주는 곳이다.

Holl and Meyer-Renschhausen(2000)은 자급자족 활동이 자부심과 만족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단순히 도시 공동체정원 활동이 단순히 물질적인 욕구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 역시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동체정원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에 따르면 도시 공동체정원

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은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을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정원 활동을 통한 사회적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며, 공동체의 의미가 적은 도시 텃밭 활동보다 그룹을 지어 재배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또한 많은 도시 공동체정원이 이웃과 정원에서 좋은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공동체정원이 도시 건강한 환경에 이바지하는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의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높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을 지향하며 이웃과의 소통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치적 활동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교육의 장이 된다. 공동체정원은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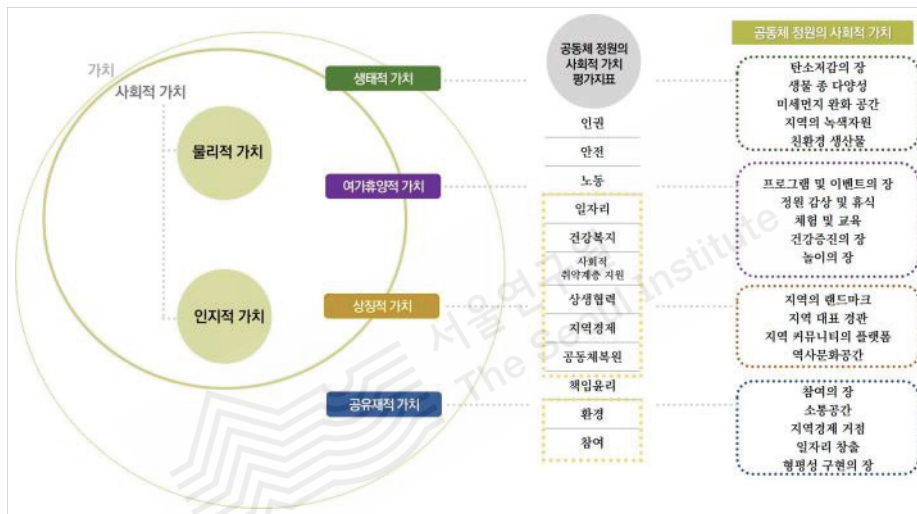
출처: Frank(2011), Appel et al(2011), Borgstdt(2011), Müller(2011), Rosol(2006), Iles(2005), Verein Gartenpolylog(2009), Holl&Meyer-Renschhausen(2000), Glaser(1998), Skolka(1984), Migge(1918) 재정리

[그림 2-3]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공동체정원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공유재적 가치가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공동체정원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소 및 평가 지표

앞서 사회적 가치의 구성 요소로 인권, 안전, 노동, 일자리, 건강복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상생 협력, 지역 경제, 공동체 복원, 책임 윤리, 환경, 참여 등 12가지 요소로 정의하였다. 공동체정원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살펴본 결과 이 중 ‘일자리, 건강복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상생 협력, 지역 경제, 공동체 복원, 환경, 참여’를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정원을 도시 녹지가 가지는 물리적 가치와 인지적 가치의 측면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 가치인 생태적 가치, 여가 휴양적 가치, 상징적 가치, 공유재적 가치를 기준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그림 2-4).



[그림 2-4]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공동체정원은 도심 내 존재하며 다양한 생물종을 위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주며, 지역의 녹색자원이 되므로, 탄소 저감의 장과 미세먼지를 완화해 주는 공간이 된다. 나아가 농작물을 스스로 가꾸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농업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생태적 가치가 높다.

또한 공동체정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과 교육의 장이 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참여하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원을 감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공동체정원은 높은 개방성으로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이웃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공동체정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며 자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공동체정원은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나아가 지역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참여를 통해 공동체정원은 지역 커뮤니티의 플랫폼으로서 작용한다. 더불어 주민들에 의해 가꾸어진 정원은 차별성을 가지는 지역의 대표 경관 및 랜드마크가 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역사·문화 공간이 될 수 있다.



03.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1_강동 공동체정원 현황

강동 공동체정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1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0,000㎡이고, 현재 운영 주체는 강동정원문화포럼으로 대표자는 김영일, 회원 수는 65명(21년 회비 납부 기준) / 158명(카카오톡 포럼 단톡방 회원 수)이다. 설립 목적은 강동구에 정원문화 조성, 정원을 통한 탄소 줄이기 실천,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의 플랫폼의 장소를 주민 주도와 참여로 환경과 교육, 복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예산은 예산 총액 69,391,214원이고, 재원 구성(100%)은 회비 수입(3.58%), 기부금 및 모금 활동(7.35%), 정부 보조(80.7%), 사업 수익(0%), 기타(8.37%)이다. 운영 조직은 아래와 같다.



[그림 3-1] 대상지 위치도

2_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1) 생태적 가치

강동 공동체정원은 총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한평정원, 건조지정원, 허브정원, 텃밭정원, 자연주의 정원이 주요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한 토양기반을 만드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식물의 서식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였는데, 한평정원은 53개 공간에 100여 종이 넘는 벌들이 올 수 있는 배초향, 광대나물 등 밀월 식물 중심으로 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목으로 조팝나무, 수국, 흰말채, 철쭉 등을 식재하였다. 빗물정원에는 꼬랑사초, 붓꽃 등 총 7개 수종을 300여개 식재하였으며, 건조지 정원에는 하설초, 평의비름, 리시안세이지 등 총 20여종을 500개 식재하였고, 그늘정원에는 수국, 아이스댄스(사초) 등 총 4여종의 수종을 200개 식재하였다. 또한 최근 라벤더, 세이지 등 30여종의 식재하여 허브정원과 털수염풀, 비늘꽃 등 60여종을 식재하여 자연주의 정원을 조성하였다. 인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원을 구성하는 생물들간의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맹꽂이가 2020년 봄에 관찰되었으며, 농약을 쓰지 않으므로 나비, 벌, 잠자리, 땅속의 작은 벌레 등 작은 곤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새가 곤충을 먹으러 오는 등 생태계가 조금씩 생성하고 있다.



[그림 3-2] 강동 공동체정원의 공간구성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체정원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었다. 첫째, 같은 면적일지라도 탄소 저장량을 높일 수 있는 식재 계획 및 수종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 공원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을 도입하고, 농약 등의 사용 금지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 2050을 위한 다양한 시민이 캠페인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 3-1] 주요 공간 프로그램

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비고
2019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	04~11	실습정원, 드라이가든, 빗물정원, 그늘정원, 숲정원, 숙근초정원 조성 및 관리	- 유휴지 땅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 - 정원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	-
2020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	04~11	- 만관학협치 사업 - 3,000평의 유휴지 정원조성	- 정원 디자인 완성 - 식재 디자인 완성 - 마을정원사 그룹 형성 - 공간의 다양한 합리적 활용 가능	-
2021	서울시 주민녹화사업	04~11	- 정원사 교육 - 정원 관리 및 조성	- 자연주의 정원 완성 - 녹화 기반 마련 - 녹화사업 사후 관리	-

생태적 가치

- 도시에서 공원이 가지는 가치의 공유
-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성장
- 땅속미생물에서부터 곤충, 식물, 동물의 생태계피라미드의 회복을 위한 공간
- 건강한 토양기반을 만들고, 식물의 서식처별 특성을 고려한 식재
-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도 정원을 구성하는 생물들간의 방어체계를 만들고 종다양성 확보를 기반한 환경조성

식물서식처 중심의 정원조성

- 빗물정원 (수종 7종 300개식재)
- 건조지정원 (수종 20여종 500개식재)
- 그늘정원(수종4종 200개식재)
- 허브정원(수종 약 30종, 500여개 식재예정)
- 자연주의정원(수종60여종 약 200개 식재예정)

마을정원사양성교육

- 2018년 마을정원사 겨울교육 / 수료40명
- 2019년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 수료25명
- 2020년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수료20명 / 주민기술학교 수료 15명








[그림 3-3] 강동 공동체정원 생태적 가치

2) 여가 휴양적 가치

강동 공동체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및 이벤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은 여가 휴양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 축제 및 이벤트 프로그램은 1년에 1회, “신나는 예술여행”이 2019년과 2020년에 추진되었다. 일상 프로그램으로는 “꿈의 놀이터”가 2020년 5월에서 11월까지 주 1회, 28가족의 가족이 28회 참여하였으며, 1회당 30-40여 명으로 총 120명이 함께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주민 기술학교와 강동구 마을 정원사 교육이 있다. 주민 기술학교는 강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2019년 6월 서울시 사회적 경제과의 주민공모사업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주민 기술학교는 주민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창업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서울지역 5개 자치구에 12개의 사업 중 유일한 공원/정원의 사업 내용이었다.

주민 기술학교 사업은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였고, 총 20회 차 교육 중 매주 3시간 이론 교육과 3시간 실습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주민 기술학교 참여자들은 강동구민이 대다수였으며, 타 자치구 거주자이지만 강동 공동체정원에서 활동을 해오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생도 포함하였다. 교육 신청 전에 교육 진행 방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전설명의 기회를 가졌는데, 타 정원사 교육보다 힘든 교육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 관심사였다. 힘든 과정임에도 이 교육 과정은 운영위원이나 정원사 교육 수료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청하였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었다.



[그림 3-4] 강동 공동체정원 여가 휴양적 가치

자원봉사자는 주 1회 정기적 모임을 가지며, 비정기적 활동은 수시로 하는데 공원의 친구들 프로그램 1,000시간과 2,000시간(1시간에 1만 원 기부),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꽃을 식재하거나 행사를 추진하였다.

[표 3-2] 주요 시민참여 프로그램

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2019	주민기술학교	06~12	- 강동주민 20명 대상 - 정원사 이론교육 및 정원 봉사실습과정 - 사회적 경제 교육	- 일자리 창출의 기회제공 -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치관 형성 - 강동선사축제 꽃길 조성 - 청담역 미세먼지프리존 수직정원 관리 - 어반 비즈 한강잠원지구 골별정원 조성 및 관리
2020	서울시정협치 사업 꿈의놀이터	05~12	- 꿈놀이단 모집 - 다다다모험놀이터 조성 - 놀이프로그램 운영	- 30가족 꿈놀이단 조직 - 30회 꿈놀이단 활동 - 서울시 놀이주관 오싹오싹 놀이터 운영
2020	공원의 친구들	07~12	- 한평정원 활동 지원 - 공원은 내 앞마당 - 구근 식재 활동 - 봉사자파티	- 봉사 1347시간으로 1천만 원 달성 - 55회 봉사, 307명 참여.

3) 상징적 가치

지역의 참여 및 정원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축제 등 주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을 통해 강동구 정원문화의 거점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푸른 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대상 수상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3-5] 강동 공동체정원의 상징적 가치

4) 공유재적 가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 내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커뮤니티 구축 형성 과정은 2017년 (가칭)강동정원문화포럼을 조직하여 시민참여 워크숍을 5회 진행하였고, 2018년 참여 주민 설명회 6회, 2019.3.20 강동정원문화포럼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692-80-01246) 발급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강동정원문화포럼은 정회원 45명, 운영진 13명, 비회원 16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회원은 회원가입과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이 회원 중 일부가 운영위원회로 활동한다. 비회원 160명은 공동체정원에 관심이 있거나, 마을공동체, 지역 활동가,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 구조이다. 모든 공간의 소통은 SNS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한 자격이나 제약사항이 없다. 공동체정원이 마을의 공유공간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소 분과로 놀이 위원회 8명이 활동 중에 있다. 활동 시기에 따라 주 1회 또는 월 2회의 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전반적 활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구조이다.

2019.5.25. 강동정원문화포럼과 강동구청,(주)플라워앤가든인퍼플 MOU 협약 체결 이후로 강동구 텃밭 정원사/마을 정원사 교육, 2020년 민관학 협업 공동체정원 설계/ 정원 작가 재능기부를 통한 식재디자인/ 마을정원사 교육 / 서울 주민 기술학교 / 서울시 정협치사업 꿈의 놀이터 / 공원의 친구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공공의 공간으로써 도시공원 또는 공동체정원의 역할은 마을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정원사의 소유가 아니고, 단순히 산책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이 아닌 마을의 다양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마을 정원사들의 정원 조성 / 놀이의 자율성을 담보한 모험 놀이터 / 지역단체의 협업으로 만들어낸 신나는 예술여행 등의 성과 등 민관의 협업과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적 공원운영 모델의 선도 사례로서 공유재적 가치가 있다.

- 총 7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그림 3-6] 강동 공동체정원 운영 조직 구성

공유재적 가치

- 공공의 공간으로써 도시공원(공동체정원)의 역할은 마을의 플랫폼으로 가능함.
- 정원사의 소유가 아니고, 단순한 산책의 서비스 공간이 아닌 마을의 다양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
- 마을정원사들의 정원조성 / 놀이의 자율성을 담보한 모험놀이터 / 지역단체의 협업으로 만들어낸 신나는 예술여행 등의 성과
- 민관의 협업과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적 정원운영 모델의 선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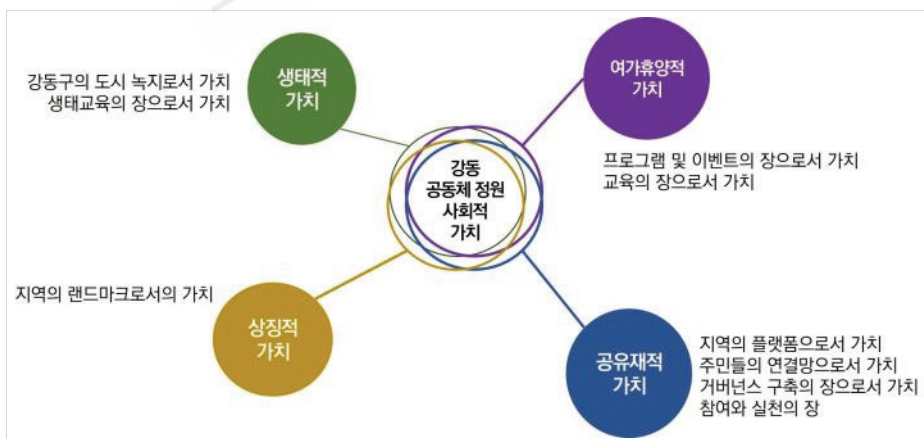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 도입

- 공동체공원 만들기 협약식(2019.05)
- 민관협력 회의 및 현장 견학회 진행

전문가 협업 및 자능기부를 통한 정원조성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연계 설계워크숍 진행
- 정원사가 공공의 계층기부를 통한 식재 설계 및 조성

[그림 3-7] 강동 공동체정원의 공유재적 가치



[그림 3-8]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종합

04. 주체별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

1_인터뷰 조사

1) 인터뷰 배경 및 목적

그동안 정원에 대한 연구는 정원의 역사, 디자인, 식물 등에 치중되어 왔으나, 정원의 확장성과 지속성, 또 산업과의 연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로서 정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원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정원의 사회적 가치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개인들이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엄영숙, 2019)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식, 규범, 경험, 문화 등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주민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가 아닐 수 있다(엄영숙, 2019).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사업이 본격화되었을 때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예방적 대응을 위한 예측과 진단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가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조사에 앞서 정성적 조사 방법의 하나인 인터뷰를 통해 행정(공무원)과 참여 주민, 비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정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체별 인식 보고 주체별 인식 차이와 갈등 요인을 도출하여 유의미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인터뷰 조사 개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별로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고자 인터뷰 대상은 참여 주민, 비참여 주민, 행정(공무원)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2인, 총 6인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

목적에 따라 강동 공동체정원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의 경험을 토대로 갈등 발생 요인과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와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여 해당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하였다.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응답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2021년 1월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ZOOM) 방식으로 전환하였다[표 4-1].

[표 4-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		일시	방식
행정 (공무원)	문○○	2020. 12. 23. 15:00	대면
	이○○	2020. 12. 24. 10:00	대면
참여 주민	조○○	2020. 12. 24. 11:00	대면
	최○○	2020. 12. 24. 14:00	대면
비참여 주민	홍○○	2021. 1. 23. 10:00	비대면(온라인:ZOOM)
	서○○	2021. 1. 23. 11:00	비대면(온라인:ZOOM)

3) 인터뷰 대상 선정 기준 및 주요 질문

본 연구의 대상지인 강동 공동체정원은 강동정원문화포럼이 강동구와 협약으로 정원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공간이기 때문에 강동정원문화포럼 이사장이자 참여 연구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주요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또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인식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체별로 명확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먼저 참여 주민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강동 공동체정원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으로 정의하였으며 ①참여 동기, ②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③참여에서 발생한 어려운 점, ④참여자의 뜻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⑤보완되어야 할 점, ⑥사업 내용 중 가장 좋은 점 또는 인상 깊은 활동, ⑦지역 사회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두 번째 비참여 주민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강동 공동체정원 및 공원(또는 정원) 사업에 대해 모르는 주민으로 ①참여-비참여 주민 간 갈등 예상 요인, ②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③주민 참여형 공원(또는 정원)의 필요성, ④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⑤주민 참여형 공원이 지향해야 하는 핵심적 사회적 가치, ⑥주민 참여

형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⑦지역 사회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세 번째는 유관 기관의 담당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1인과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공무원 1인에게 ①참여-비참여 주민 간 갈등 예상 요인, ②참여 주민과 공공(행정) 간의 갈등 요인 및 사례, ③참여 주민 간의 갈등 요인 및 사례, ④주민 참여형 공원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⑤주민 참여형 공원의 핵심적 사회적 가치, ⑥지역 사회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림 4-1] 인터뷰 대상 및 주요 질문

2_주체별 사회적 가치 평가 조사 내용

1) 행정(공무원)

인터뷰 대상으로서 행정(공무원)은 주민참여 사업 유경험자인 A 과장과 강동구청 공무원으로 협약 과정부터 지금까지 강동 공동체정원 시범 사업을 담당한 B 주무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각각 1시간가량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미리 준비해 간 질문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장소에서 바로 작성하였으며 정확성을 위해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이후 현장에서 작성한 인터뷰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였다.

먼저 공동체정원의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사이의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질문에 A 과장은 오히려 갈등이 있을 만큼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지 반문하며 무관심할 것으로 보았으며, B 주무관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참여 주민과 공공(행정) 간의 갈등 여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주로 공원을 만들면 되지, 예산을 써서 왜 이런 것(주민참여)을 하느냐에 대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B 주무관은 공간의 활용 방안을 두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차(예: 텃밭-도시농업과, 공원-푸른도시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주민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A 과장은 정원을 토대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더 많은 주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B 주무관은 각자 다른 서로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른 요구 등이 갈등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참여형 공원에 대해 A 과장은 내부 운영진에서 주무 부처 대응, 사업 계획 및 추진 등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B 주무관은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적절히 이끌어 나가는 것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공공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주민이 원하는 바를 행정과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을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길로 필요하며, 소극적인 행정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주민참여형 공원의 핵심적 가치로 공통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지역에서 지역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 공원에 공익적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치

막으로 이러한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는, A 과장은 주민이 원하는 바를 행정 및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공익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B 주무관은 공원이 가진 기능(돌봄, 복지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공원을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주민(강동 공동체정원 참여)

참여 주민은 강동 공동체정원의 운영조직인 강동정원문화포럼 회원으로 정원 활동에 참여하는 C 주민과 정원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D 주민 2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미리 작성한 질문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2021년 1월에 각각 1시간 50분가량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현장에서 작성한 내용을 보완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강동 공동체정원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는 C 주민은 강동구 도시농업과에서 실시한 텃밭 정원사 교육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상담사로 일하며 배운 것을 타인에게 베풀고자 하는 개인적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참여하게 되었고, D 주민은 강동구의 사회적협동조합인 함께강동의 사무국에 근무하며 정원 조성 및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으나 강동정원 문화포럼의 회원이자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강동 공동체정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C 주민은 정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비전에 공감하며, D 주민은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가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꼽았다. 참여 과정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강동 공동체정원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C 주민은 앞서 공감한 비전에 대해 어떤 계획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D 주민은 수익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가장 좋았던 사업 내용과 인상 깊었던 활동에 대한 질문에 정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좋았으며, 모두 각각의 가치가 있어 우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C 주민은 서울 전역에 주민이 만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강동 공동체정원을 기점으로 예산 확보 등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며 D 주민은 강동 공동체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공동체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하였다.

3) 주민(강동 공동체정원 비참여)

비참여 주민은 강동 공동체정원의 운영조직인 강동정원문화포럼의 회원을 통해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E 주민과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F 주민을 인터뷰 대상으로 추천받았다. 앞선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미리 작성한 질문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2021년 1월에 각각 1시간 30분가량 비대면(ZOOM)으로 실시하였다. E 주민은 강동정원문화포럼에서 활동하는 지인이 있으나 강동 공동체정원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았다고 답했는데, 인터뷰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정원과 공원, 주민참여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선행하였다. F 주민은 강동정원문화포럼에서 활동하는 지인을 통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어 부가적인 설명은 생략하였다. 이후 참여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참여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E 주민은 건강과 도시 생활에서의 탈출구로서 자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고 싶다고 대답하였으며, F 주민은 참여주민 간의 관계가 돈독해 보여 들어갈 공간이 있을지, 또 정원 조성 활동이 몸을 많이 쓰는 일이라 주저하게 된다고 답하였다.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해 E주민은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 공간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F 주민은 나의 의견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점이나 누구에게나 접근이 쉬운가 하는 점을 갈등 발생 요인으로 보았다. 주민참여형 공원 및 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E 주민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언급하였으며, F 주민은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원이지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다.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묻는 다음 질문에서 대상자 모두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 답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이기심,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주민참여형 공원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는 E 주민은 치유와 힐링의 효과, 소외된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F 주민은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지역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E 주민은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았으며 F 주민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4) 종합

사전에 준비한 인터뷰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분석한 결과, 크게 참여 주민 간, 참여 주민-비참여 주민 간, 주민-행정 간의 인식 차이 발생과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에 대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각 유형별로 인터뷰 대상의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표 4-2] 인터뷰 질문 유형 구분

대상	인터뷰 질문	유형 구분
행정 (공무원)	○ 공동체정원의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사이의 예상되는 갈등 요인은 무엇인가요?	인식 차이 발생
	○ 공동체정원의 참여 주민과 공공(행정) 간의 갈등이 있나요?	
	○ 공동체정원의 참여 주민 사이의 갈등이 있(었)나요?	
	○ 주민참여형 공원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가치
	○ 주민참여형 공원이 행정(공공)의 관점에서 왜 필요한가요?	
	○ 주민참여형 공원의 핵심적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참여 주민	○ 공동체정원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사회적 가치
	○ 공동체정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나요?	
	○ 공동체정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인식 차이 발생
	○ 공동체정원 사업이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어떤 사업 내용이 가장 좋은가요?	
	○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지역사회에 반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비참여 주민	○ 강동 공동체정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해당 없음
	○ 공동체정원에 참여한다면, 어떤 이유인가요?	사회적 가치
	○ 공동체정원의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이 예상되나요?	인식 차이 발생
	○ 주민참여형 공원 및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요?	
	○ 주민참여형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민참여형 사업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사회적 가치
	○ 주민참여형 공원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핵심적으로 지향해야 할까요?	
	○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첫째, 인식 차이 발생에 대해서 세 집단 모두 각 주체 간 인식 차이는 필연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예방 또는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차이점은 주민의 경우, 행정(공공)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참여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의 경우, 선행 및 성공 사례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각 주체별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다양하였으나, ‘공원’이라는 공간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어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민의 경우, 강동 공동체정원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원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사업의 성공 여부 또한 정원(또는 공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후 참여-비참여 주민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설문지 작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세 집단 모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공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자원으로서 공원의 공공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의 인식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참여 주민의 경우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및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지역사회에 꾸준히 기여하고자 하며, 비참여 주민의 경우, 공원 확보 및 녹지공간 증대 측면에서 공원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여가 생활이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다.

3_주체별 사회적 가치의 의견 및 평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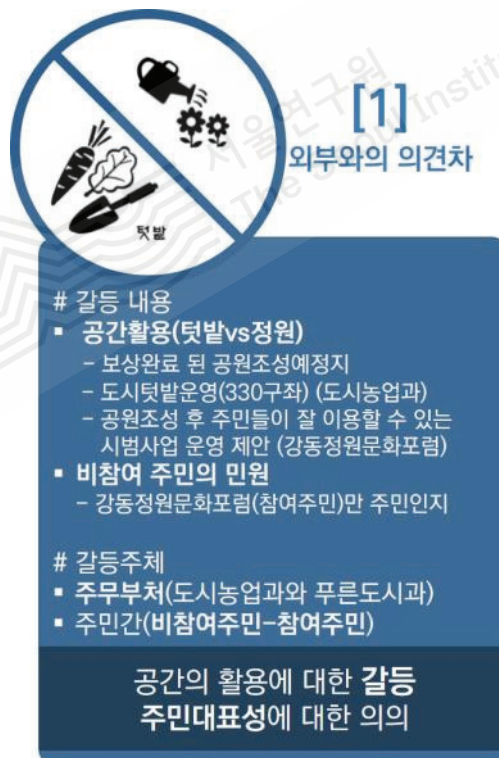
인터뷰 조사 내용 및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강동 공동체정원에서 나타나는 주요 의견 차이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주요 의견 차이

인터뷰 조사를 통해 도출한 주요 의견 차이는 그 주체 및 내용에 따라 (1) 외부와의 의견차, (2) 내부에서의 의견차, (3) 방향성에 대한 의견차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외부와의 의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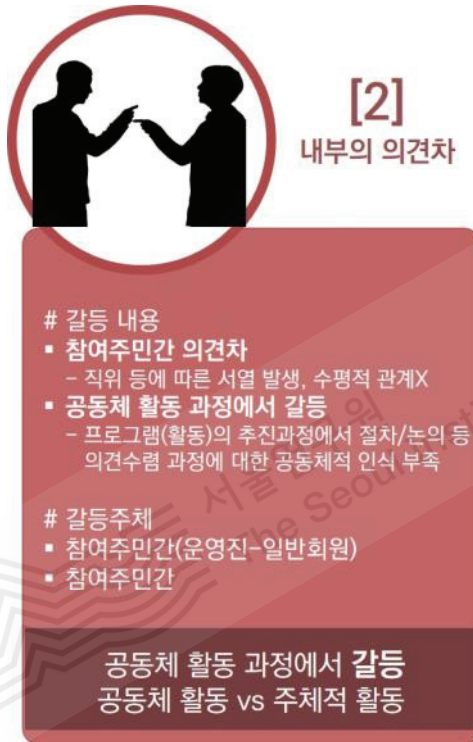
외부와의 의견 차이는 그 주체가 주무 부처 간인 경우와 지역주민 중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인 경우로서, 갈등의 내용은 보상이 완료된 공원 조성 예정지에 도시 텃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강동정원문화포럼에서 공원 조성 후에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하며 공간 활용을 텃밭으로 할 것인지, 정원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있었던 의견 차이로 도시 텃밭의 운영은 도시농업과가 담당하고 정원 조성·관리 시범사업은 푸른도시과 담당으로 주무 부처가 달라 발생하게 된 의견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어떤 사업이라도 지역주민 전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은 경우 약 330구좌를 각각 분양받은 주민이 참여하고 공동체정원은 강동정원문화포럼 회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참여 주민으로 하여금 ‘강동정원문화포럼 회원만 주민이냐’, ‘주민참여라고 하는데, 주민이라고 하지 마라’ 등 한정된 참여 인원의 대표성에 대한 의의 제기 및 민원 발생 원인이기도 하다.



[그림 4-2] 인터뷰를 통해 본 주요 의견 차이 - (1) 외부와의 의견차

(2) 내부에서의 의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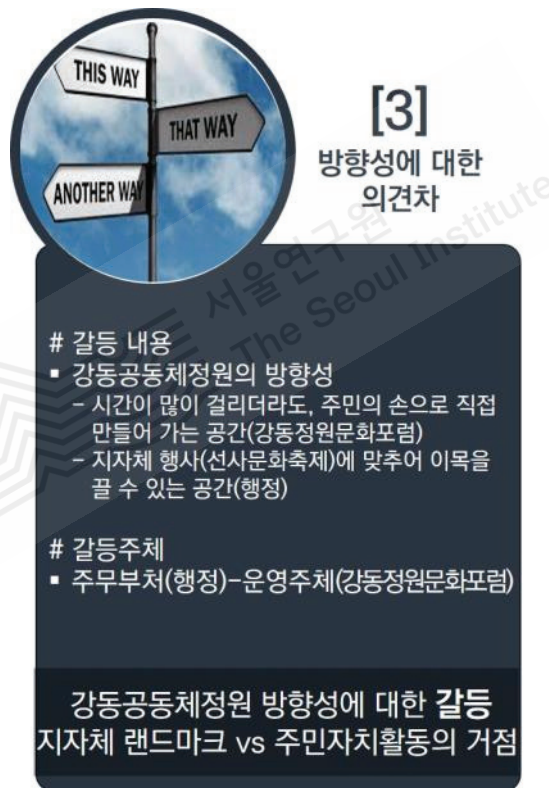
조직 내부에서는 직위, 참여 경력 등에 따라 서열이 발생하여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진과 일반회원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거나 같은 일반회원 내에서 프로그램(활동)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추진하는 등 공동체 활동 및 공동체적 인식이 부족하여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났었다.



[그림 4-3] 인터뷰를 통해 본 주요 의견 차이 - (2) 내부에서의 의견차

(3)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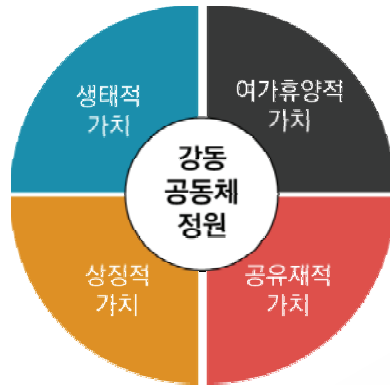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는 조직 내·외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강동정원문화포럼의 경우 조직 내에서 이러한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총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운영 주체와 지자체 행사(선사문화축제)에 맞추어 이목을 끌고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주무 부처(행정)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주민자치활동의 거점이자 지자체의 랜드마크로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4] 인터뷰를 통해 본 주요 의견 차이 - (3) 방향성에 대한 의견차

2) 사회적 가치 평가

인터뷰 결과를 앞서 도출한 생태적 가치, 여가 휴양적 가치, 상징적 가치, 공유재적 가치의 4가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림 4-5]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1) 생태적 가치

강동 공동체정원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주민, 비참여 주민 모두 공원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강동 공동체정원의 성공 여부 또한 정원(또는 공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행정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생태적 가치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의 진행 속도나 텃밭, 정원, 공원 등 한정된 공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났다.

(2) 여가 휴양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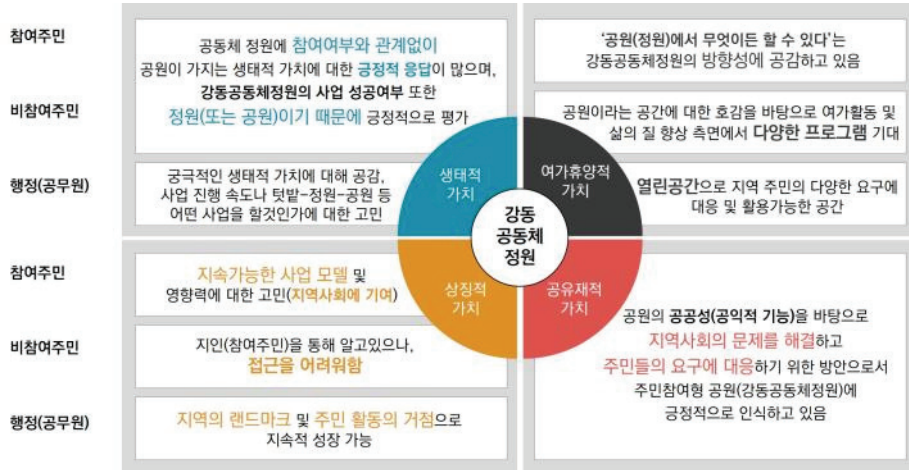
강동 공동체정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공원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목표로 출범한 주민공동체 '강동정원문화포럼'이 공원(정원)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교육, 놀이,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주민조직 자체 역량으로 지속해왔다. 참여 주민은 이러한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비참여 주민 또한 공원 혹은 정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지역에 부족한 문화, 예술, 놀이, 건강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행정 또한 공원이란 공간은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하였다.

(3) 상징적 가치

최근 주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 육성하고자 서울시의 주최로 개최된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에서 민관협력 분야 대상을 수상한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주민 활동의 거점으로 서 기대 또한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참여 주민 또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영향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 유도과 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인터뷰의 대상자였던 비참여 주민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알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음에도 막상 참여하기 어려워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어떠한 부분이 접근과 참여를 어렵게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4) 공유재적 가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임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서인석,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여전히 불신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유재적 가치에 대한 응답을 주목할 만하다. 참여 주민, 비참여 주민, 행정 모두 공원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를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사례로 강동 공동체정원의 공유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다양해지며 제도가 확산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자치구의 재정적 한계, 참여 주민의 책임 분배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 부족, 집단의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무관심과 익명성 등 제약점과 사업이 본격화되며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의 가능성 등도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원 또는 정원이 갖는 효용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모색한다면 ‘사회적 혜택이 비용을 능가’하는 모습으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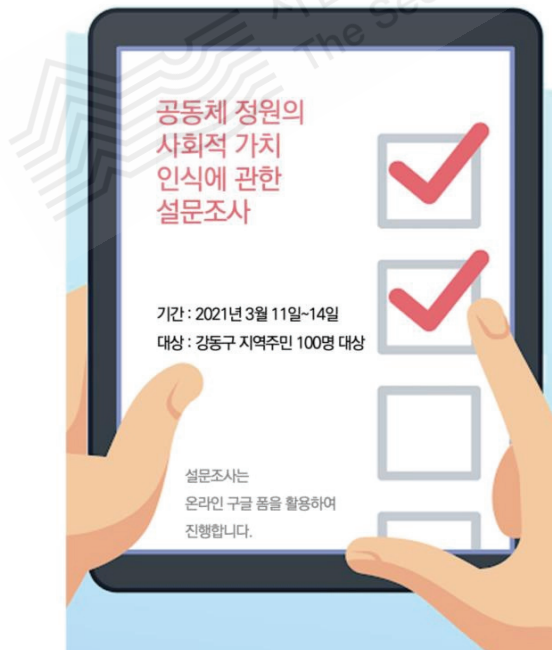


[그림 4-6] 강동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인터뷰 내용 종합)

05. 집단 간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1_설문 조사 개요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각각 51명씩 102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1일~3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은 구글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 분석은 SPSS 21.0을 활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1. 응답자 특성, 2. 집단 간 공동체정원에 대한 참여 및 이해정도, 3. 집단 간 공동체정원의 예상되는 갈등 요인, 4. 집단 간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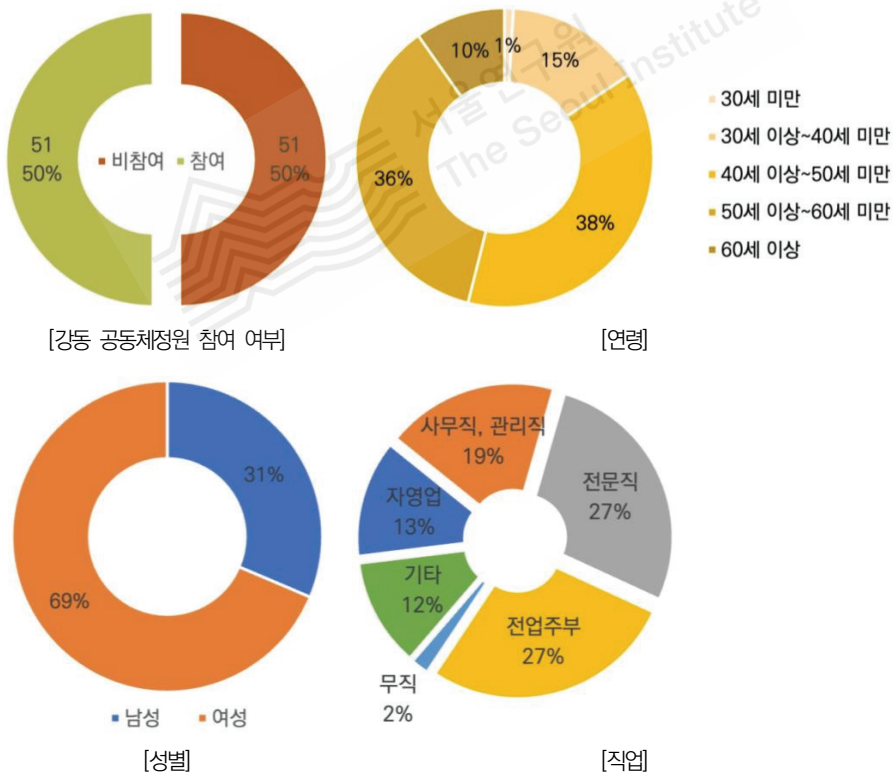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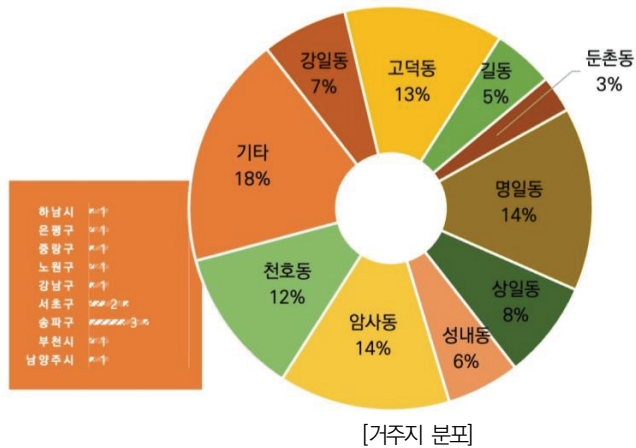
[그림 5-1] 설문개요

2_집단 간 공동체정원의 이해 및 예상되는 갈등 요인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강동 공동체정원에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 주민 51명(50%)과 참여 경험이 없는 비참여 주민 51명(50%)이었으며, 성별은 남성(31%), 여성(69%), 연령대는 30세 미만(1%), 30세~40세(15%), 40~50세(38%), 50~60세(36%), 60세 이상(10%)였다. 거주지는 강동구 거주자(82%), 기타(18%)였으며, 강동구 거주자는 강일동, 고덕동, 길동, 둔촌동, 명일동, 상일동, 성내동, 암사동, 천호동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집단 구성 내용은 [그림 5-2]와 같다. 설문에 응답한 지역주민의 특성은 40대, 50대의 비율이 74%로 높고 남녀의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대부분 강동구 주민으로 지역 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기타 지역 응답자의 경우도 강동구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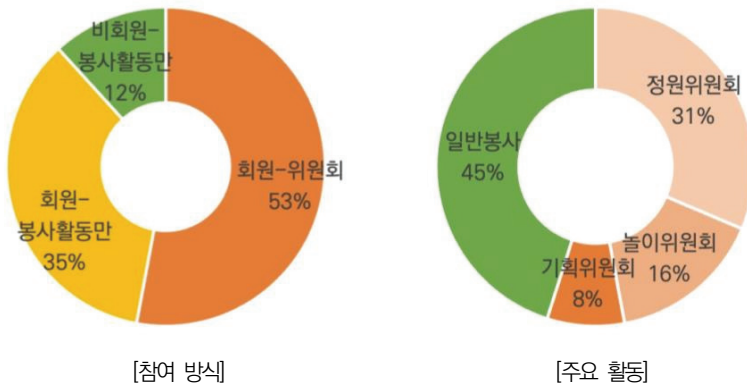
[그림 5-2]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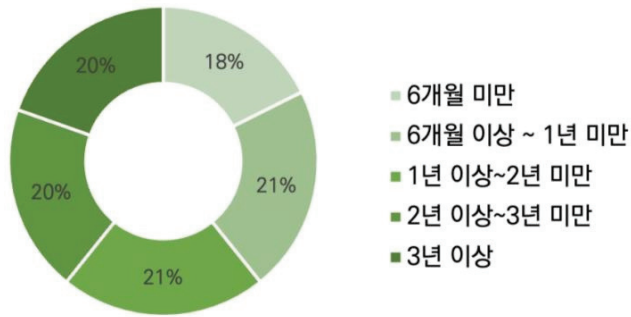
2) 집단 간 공동체정원에 대한 참여 및 이해 정도

(1) 참여 주민의 참여 정도

① 공동체정원의 참여 방식

공동체정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 주민은 봉사활동만 참여하는 비회원(12%)과 회원(88%)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원은 봉사활동만 참여하는 경우(35%)와 위원회 활동 참여하는 경우(53%)의 비율을 나타냈다.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일반 봉사(45%)와 정원위원회(31%), 놀이위원회(16%), 기획위원회(8%)의 위원회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여 기간은 6개월 미만(18%), 6개월~1년(21%), 1~2년(21%), 2~3년(20%) 3년 이상(20%)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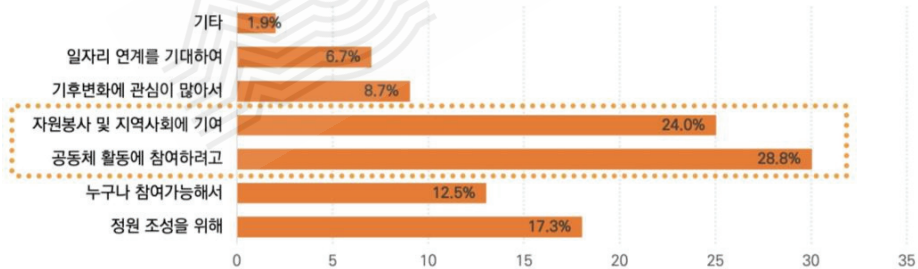


[참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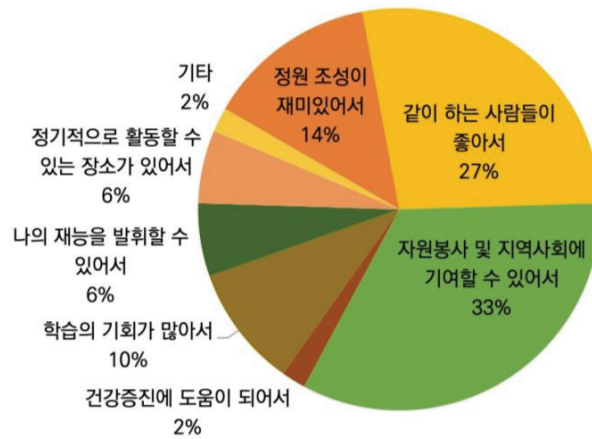
[그림 5-3] 참여 주민의 공동체정원 참여 방식

② 참여 동기 및 지속적인 참여 이유

공동체정원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28.8%),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에 기여(24.0%) 순으로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를 통한 기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참여 이유는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에 기여(33.0%)로 가장 높았으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서(27.0%)로 50% 이상이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4] 공동체정원의 참여 동기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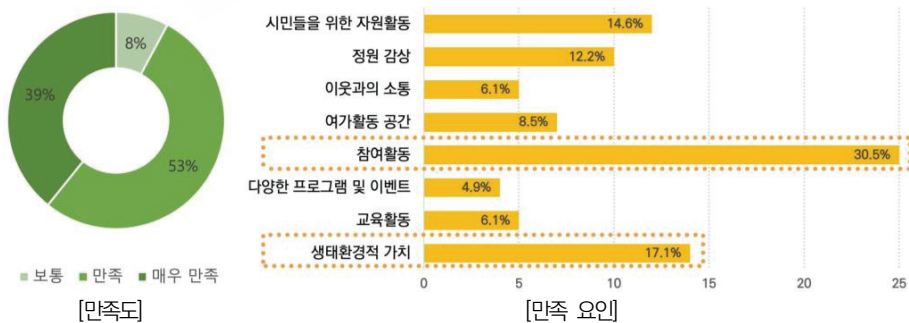


[그림 5-5] 공동체정원 활동의 지속적 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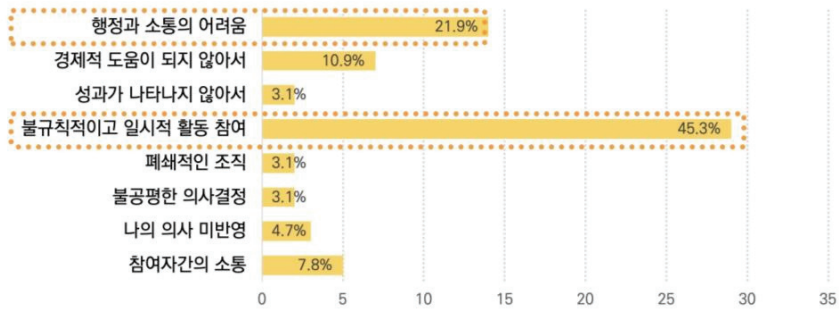
③ 공동체정원의 만족도 및 참여 저해 요인

공동체정원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만족 요인은 참여 활동(30.5%), 생태·환경적 가치 증진(17.1%), 시민들을 위한 자원 활동(14.6%)으로 인한 참여 활동에 만족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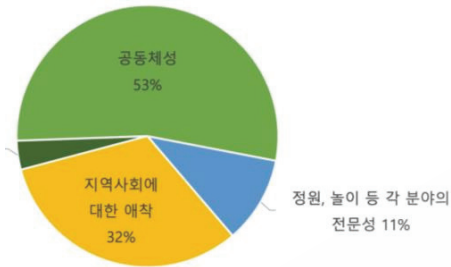
공동체정원 활동 참여의 어려움은 불규칙적이고 일시적 활동(45.3%), 행정과 소통의 어려움(21.9%)이었다. 또한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참여자의 중요한 역량은 공동체성(53.0%), 지역에 대한 애착(32.0%)으로 정원을 가꾸는 전문성보다도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5-6] 참여 만족 정도 및 요인



[참여의 어려움]



[참여자의 주요 역량]

[그림 5-7] 공동체정원 참여의 어려움 및 참여자의 주요 역량

(2) 비참여 주민의 강동 공동체정원에 대한 이해

①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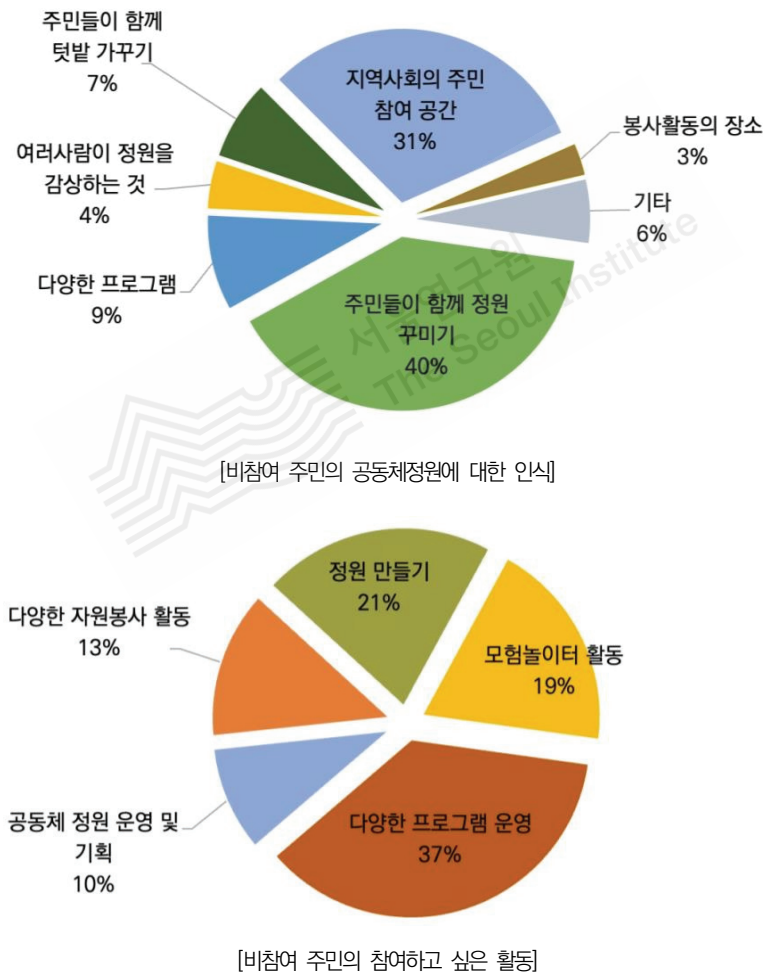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비참여 주민 대부분은 강동 공동체정원에 대해 인지(88.0%)하고 있었고, 방문 경험(64.0%)이 있었으며, 지인이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69.0%)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5-8] 비참여 주민의 강동 공동체정원에 대한 인지 여부

② 공동체정원에 대한 인식 및 희망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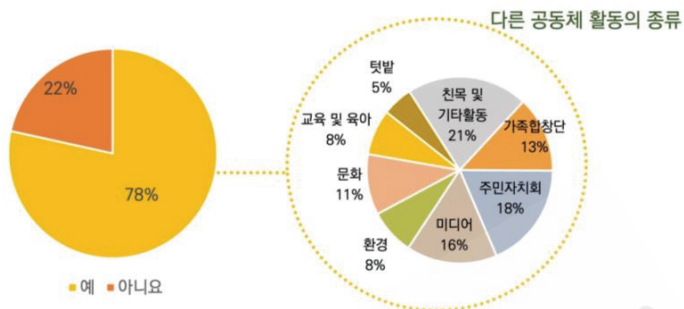
비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동체정원은 주민들이 함께 정원을 꾸미는 공간(40.0%), 지역사회의 주민참여 공간(31.0%)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공동체정원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37.0%)와 정원 만들기(21.0%), 모험 놀이터 활동(19%),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13.0%), 공동체 정원 운영 및 기획(10%) 등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고르게 참여 의사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공동체정원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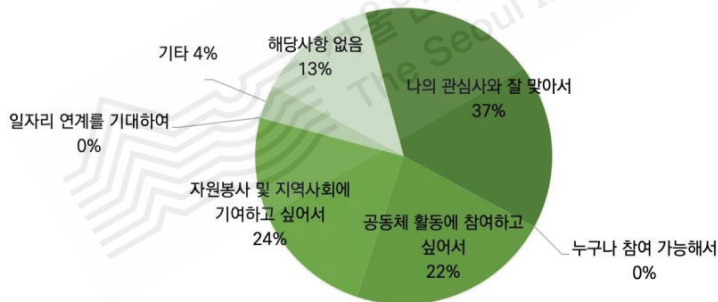
[그림 5-9] 비참여 주민의 강동 공동체정원에 대한 인식 및 참여하고 싶은 활동

③ 다른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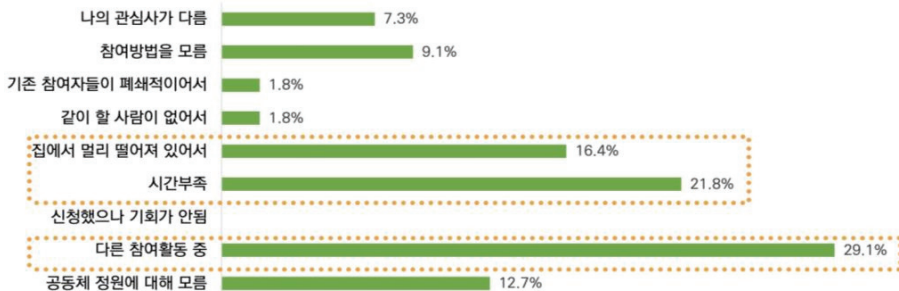
비참여 주민들은 지역 내의 다른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78%)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동체 활동은 주민자치회(18%)를 제외하고는 취미와 친목 중심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른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나의 관심사와 잘 맞아서(37.0%),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27.0%),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24.0%) 순으로 나타났다. 강동 공동체정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어서(29.1%), 시간이 부족해서(21.8%) 등이었다.



[비참여자의 지역 내 타 공동체활동 참여 여부 및 종류]



[타 공동체활동 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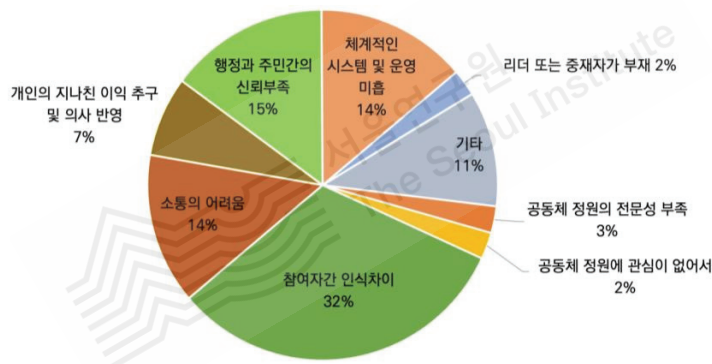


[강동 공동체정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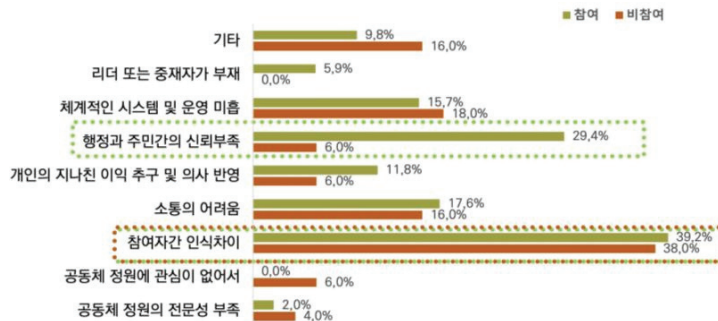
[그림 5-10] 비참여자의 다른 공동체 활동 참여 내용

3) 집단 간 공동체정원의 예상되는 갈등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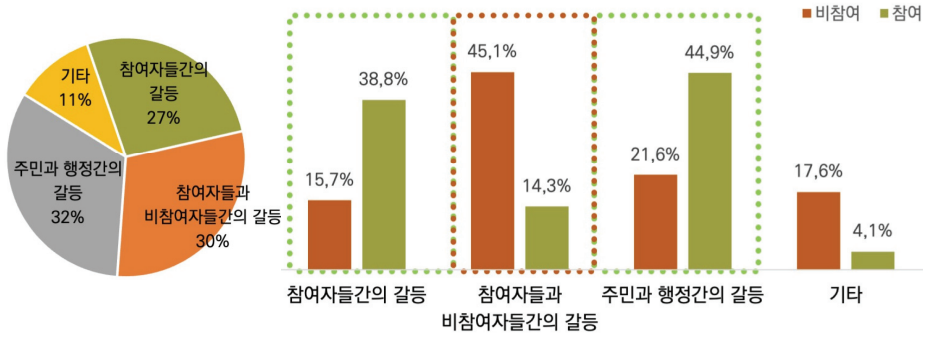
공동체정원에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 주민과 경험이 없는 비참여 주민이 예상되는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참여자 간 인식 차이(32.0%), 행정과 주민 간의 신뢰 부족(15.0%), 소통의 어려움(14.0%), 체계적인 시스템 및 운영 미흡(14.0%) 순이었다. 집단 간 비교하면 참여 주민은 참여자 간의 인식 차이(39.2%), 행정과 주민 간의 신뢰 부족(29.4%) 순이었으며, 비참여 주민은 참여자 간의 인식 차이(38.0%), 체계적인 시스템 및 운영 미흡(18.0%) 순이었다. 두 집단 모두 갈등 해소에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비참여 주민보다 참여 주민이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고 행정과의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참여 주민의 증가와 참여 기회 확대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자 역할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한 행정의 대응이 있다면 이는 행정과 주민 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사회적 갈등 야기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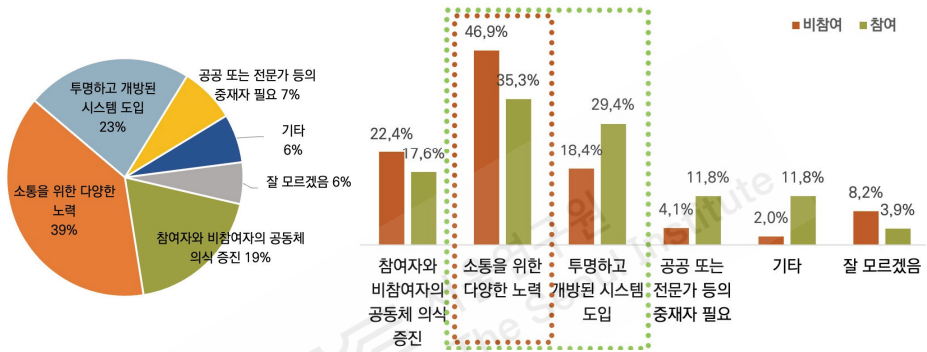
[그림 5-11] 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의 종합



[그림 5-12] 집단 간 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림 5-13] 집단 간 갈등 발생 주체 인식



[그림 5-14] 집단 간 갈등 해소 방안

3_집단 간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1) 사회적 가치 요소별 평균 비교

사회적 가치 요소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그림 5-15]와 같다. 전체적으로 여가 휴양적 가치(4.03), 상징적 가치(3.90), 공유재적 가치(3.80), 생태적 가치(3.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적 가치(3.88)가 나타났다. 여가 휴양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는 전체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공유재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강동 정원 문화의 거점(4.23), 정원 감상 및 휴식 공간(4.17),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4.15), 누구나 이용 및 참여 가능(4.13) 등이 가치별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환경 농산물 및 먹거리 제공(3.15), 다양한 일자리 제공(3.28) 및 지역 경제 활성화(3.19) 등은 낮게 나타났다. 해석해보면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모두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가 휴양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가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공유재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의 정원 문화의 거점이자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공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생태적 가치			여가휴양적 가치				상징적 가치				공유재적 가치						사회적 가치		
항목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생물종 다양성 보전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도움 (미세먼지·탄소저감 등)	친환경 농산물 및 먹거리 제공	정원감상 및 휴식공간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놀이 및 교육공간	건강 증진의 장	강동의 랜드마크	강동 정원문화의 거점	강동지역사회의 플랫폼	암사역사문화자료원의 보고	구성원들간의 활발한 소통	행정과 시민간 신뢰의 장	자치적 활동 가능	지역사회에 유대감 형성	다양한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누구나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
평균	4.15	3.80	4.05	3.15	4.17	3.97	4.13	3.86	3.85	4.23	3.94	3.57	4.03	3.72	4.07	4.04	3.28	3.19	3.91	4.13
전체 평균	3.79			4.03				3.90				3.80						3.88		

[그림 5-15] 사회적 가치 요소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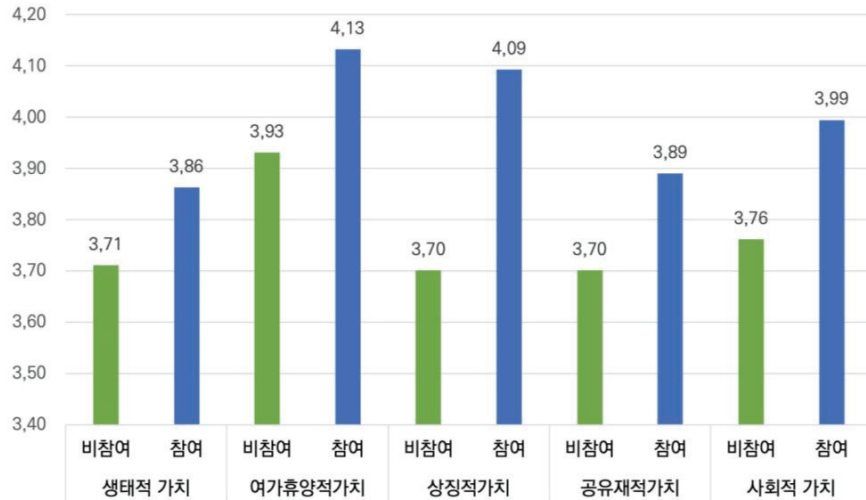
2) 집단 간 사회적 가치 평균 비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그림 5-16]과 같다. 전체적으로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참여 주민(3.99)이 비참여 주민(3.76)보다 높았으며 4가지 사회적 가치 요소 모든 부분에서 참여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 주민은 여가 휴양적> 상징적> 공유재적> 생태적 가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참여 주민은 여가 휴양적, 생태적> 상징적=공유재적 가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여가 휴양적 가치는 모두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상징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상징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0.39)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0.15)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 주민일수록 상징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비참여주민들에게는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요소로 자세히 살펴보면, [표 5-1]과 같이 상징적 가치의 “강동 지역 사회의 플랫폼”(유의 확률 $p<0,014$)과 공유재적 가치의 “누구나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유의 확률 $p<0,017$)가 독립표본 T-검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참여 주민의 경우 강동 지역 사회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와 기대가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비참여 주민은 강동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으로서 가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었으며, 의견 제시 측면에서도 비참여 주민들의 접근은 제한적이므로 낮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16] 집단 간 사회적 가치 평균 비교

[표 5-1] 세부 요소별 독립 표본 t 검중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구분	생태적 가치				여가 휴양적 가치				상징적 가치				공유재적 가치							
	건국 70주년 생태환경 조성	생태환경 조성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노력	친환경농산물 및 먹거리 제공	정원가꾸기 및 휴식공간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놀이 및 교육공간	건강 증진의 장	강아지 랜즈마크	강아지 정원문화의 거점	강아지 사회의 플랫폼	암사연사문화자원의 보고	구성원들의 활발한 소통	행복과 시민간 신뢰의 장	자치적 활동 가능	지역사회에 유대감 형성	다양한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노구나 평등하게 이익을 제시	노구나 이용 및 참여 가능
비 참여	4.00	3.65	3.88	3.31	4.00	3.94	4.08	3.71	3.65	4.06	3.69	3.41	3.86	3.65	3.94	3.86	3.45	3.22	3.67	3.96
참여	4.29	3.96	4.22	2.98	4.33	4.00	4.18	4.02	4.06	4.39	4.20	3.73	4.20	3.78	4.20	4.22	3.12	3.16	4.16	4.29
평균	4.15	3.80	4.05	3.15	4.17	3.97	4.13	3.86	3.85	4.23	3.94	3.57	4.03	3.72	4.07	4.04	3.28	3.19	3.91	4.13

3)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 요인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유재적 가치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업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는 수정된 R제곱 0.431, $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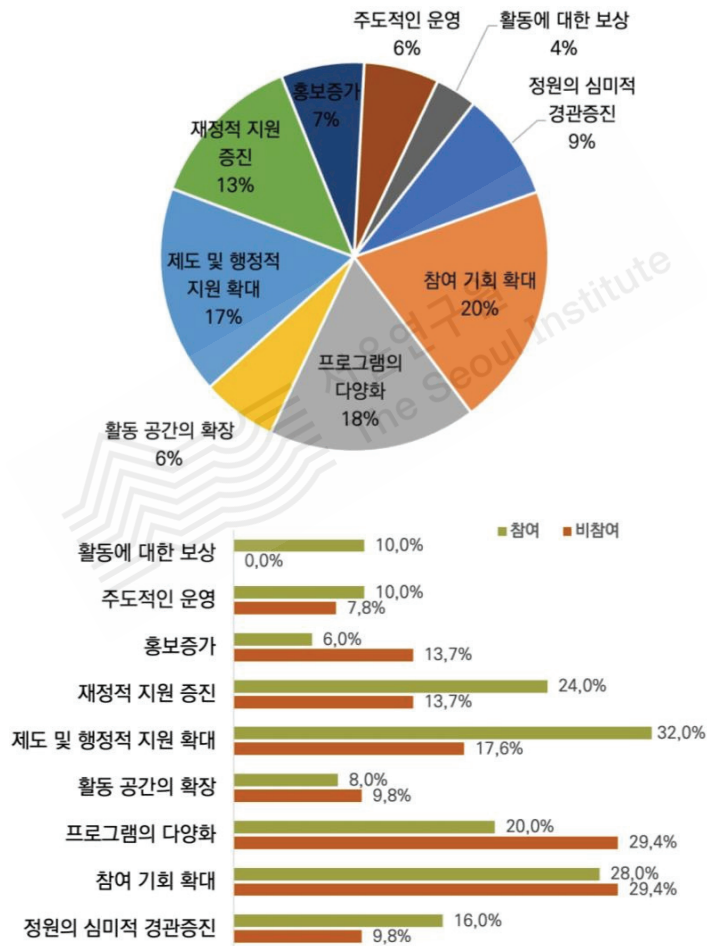
[표 5-2] 회귀분석 결과

모형 요약 ^b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690a	0.477	0.431	0.465	2.530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 오류	베타			공차	VIF
1	(상수)	2.669	0.334	7.988	0.000		
	ECO	-0.110	0.143	-0.157	0.447	0.273	3.667
	LEI	0.285	0.173	0.406	1.646	0.187	5.351
	SYM	-0.345	0.143	-0.490	-2.409	0.020	3.642
	COM	0.592	0.169	0.810	3.511	0.001	4.677

4)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집단을 종합해보면, 참여 기회 확대(20.0%), 프로그램의 다양화(18.0%), 제도 및 행정적 지원 확대(17.0%) 순이었다. 집단을 비교하면 참여 주민은 제도 및 행정적 지원 확대(32.0%), 참여 기회 확대(28.0%), 재정적 지원 증진(24.0%) 였고, 비참여 주민은 참여 기회 확대(29.4%), 프로그램의 다양화(29.4%) 순으로 참여 기회 확대는 두 개의 집단 모두 중요한 가치 증진 수단이라고 하였으나, 제도 및 행정의 지원과 프로그램 다양화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5-17]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06. 결론

1_결과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 집단 간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의 인식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공동체정원이 사회적 구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참여하는 집단일수록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요소 중 물리적 가치인 여가 휴양적 가치는 집단과 상관없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생태적 가치, 상징적 가치, 공유재적 가치에서는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생태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주체별로 인식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중에서 주체별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는 요소는 공유재적 가치이며, 공동체정원이 지니는 공유재적 가치를 통해 향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 또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동체정원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공통점을 인식하고,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 절차를 가지고 추진해 나아갈 뿐 아니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상위 목표에 대한 합의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공동체정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법에서는 참여 기회를 높이고 집단 간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주체별로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갈등 부분에서는 다른 집단, 또는 행정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실질적인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동일하고 구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단에 대한 신뢰와 제한적인 소통, 참여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갈등이 있을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집단 간의 목표가 일치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참여 주민보다 참여 주민일수록 행정에 대한 갈등을 우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과 체계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비참여 주민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첫째는 주민주도형 공동체정원을 시도하는 집단과 이에 대응하는 행정의 역할에 대한 기준의 미흡함, 둘째는 주민주도형 공동체정원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기준 부재, 셋째는 주민주도형 공동체정원의 요구에 대응하는 행정 방식의 체계화를 만들어 개방성 있고 체계성을 구축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참여 단계에 따라 사회적 가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 이전 단계의 비참여 주민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동체정원을 위해서는 참여 방안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참여 기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홍보, 육체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참여 주민들의 집단화 우려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참여 주민들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행정과의 원활한 소통의 필요, 주체 간의 신뢰를 키우기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재정 및 제도의 체계화, 참여 주민의 대표성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향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참여 주민이 참여 주민이 되고, 참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동체정원의 지역주민의 목표는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를 수 있음이 나타났고, 동시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호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때, 사회적 가치의 목표를 공유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내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체 별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에 대해 중간 조직의 도입을 통해서 주체 간 소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_정책 제안

62

서울시 전역에 민간참여형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원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공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안과 과제를 심도 있게 인터뷰함으로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06

전남

첫째,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동체정원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체정원은 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시작되어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이를 단계별로 지원 및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청회 수준에서 의견 수렴 정도의 주민참여 방식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직접 의견을 내고, 결정되는 사업에 대한 실행과 이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참여의 정도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관되는데 이는 책임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권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예산 등의 제도적 지원이 장기간으로 계획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파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그림 6-1]. 이러한 조례뿐 아니라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관련 조례를 결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정원이 도시공원 내에 도입된다면 법적으로 도시공원의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등을 도입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도시공원의 공동체정원만들기 운영 조례”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6-1]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둘째,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동체정원에 대한 목표 공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조사 결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공동체정원의 주체별 인식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목표의식에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상호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다양성에 대한 거부감이 핵심 갈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감을 이끌기 위한 협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성에 기반한 협의의 프로세스는 첫 번째, 미지의 단계, 두 번째, 이해의 단계, 세 번째 성숙의 단계, 네 번째, 안정화의 단계이다(이석현, 2014).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미지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안정화의 단계로 도달하는 과정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공유하는 현재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의 방식이 아닌 [그림 6-2]의 독일의 주민참여 활동 사례와 같이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고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향후 공동체정원이 정원을 가꾸고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참여와 실천의 장으로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공감하고 공동체정원의 지향성에 대한 인정과 가치공유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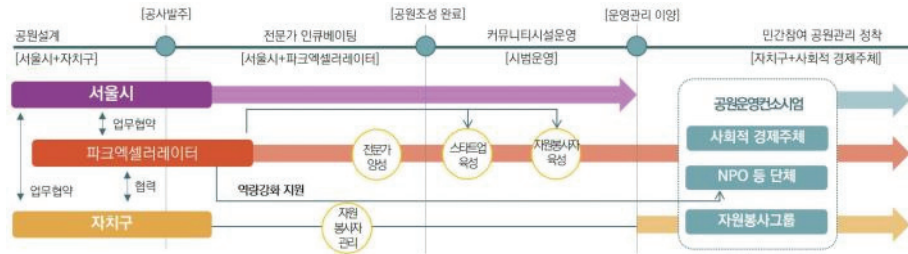


자료: 허윤경(2021) 지속가능한 개발 SDGs의 17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 인프라 사례_독일,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연구모임 1기 발표자료 중

[그림 6-2] 독일의 주민참여 활동 사례

셋째, 공동체정원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원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통해 공유재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거점 시설 도입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독립 및 재원 확보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와 개방적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 주체별로 여가 휴양적 가치를 위한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비참여 주민일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인식 차이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공동체정원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순조롭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의 확보와 독립적 운영 및 책임권 부여가 필요한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인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운영조직을 도입[그림 6-3]하여 재

정적인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며 이에 따른 책임 권한을 이원화함으로써 재정적 독립과 책임, 지원금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료: LH(2020) 기후변화 대응 도시민 여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모델구축 연구, 연구진 재정리

[그림 6-3]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도입(안)

또한 공간이나 예산 등의 제도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주민참여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사업과 지원으로는 성과가 날 수 없으며 정량적보다 정성적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토대로 독립적 운영에 대한 장치나 제도가 필요하다. 행정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사업은 주민 주도의 동력을 성장시킬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 여건상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공공성에 기반한 공익사업이나 기업 후원 등을 통한 운영자금 마련과 자율적 운영, 자원봉사와 일자리 창출이 혼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을 지역사회 환원하는 방식 등 재정적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도시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동체정원 또는 이를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민운영 시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 내의 시설 및 공원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LH(2020)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에 의해 무상사용수익허가 등으로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그림 6-4],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한 도시공원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도입되어야 한다.

LH 민간참여 시범운영 지원

- 운영방식 : 무상사용수익허가
- 운영대상 : 복합커뮤니티시설
- 도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
- 민간 등이 행정재산으로 시설물 등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21조 1항에 의해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영내용 : (1) 수익시설의 운영
(2) 공원프로그램의 운영
(3) 자원봉사자 양성 및 공원운영자 양성사업
(4) NPO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구분	운영대상	운영주체·방식	적용가능성	관련 적용규정
(1안) 시설 부분 운영	복합커뮤니티시설만 운영	LH : 무상사용허가 지자체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커뮤니티시설) 기부채납 시 조건부 무상사 용 계약을 지자체와 체결하여 민간참여 안정운영 후 완전한 기부채납 실시 (*일본 설치관리자 운영기간 10년 이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의 단서 민간 등이 행정재산으로 시설물 등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기 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21 조 1항에 의해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2안) 시설 전체 운영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소규모시설 전체 운영	LH : 무상사용허가	-커뮤니티시설의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시 사 회적 경제주체들의 참여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제한 적 민간참여 -민간위탁을 위해 LH도 다른 기업과 같이 경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우월적 지위는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1.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과 달리 LH는 커뮤니티시설 운영사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LH 가 민간위탁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불확실함 2.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운영참여시 지자체에 사용료 를 납부해야 함

자료: LH(2020) 기후변화 대응 도시민 여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모델구축 연구, 발표
자료 중 발췌

[그림 6-4] 도시공원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식 및 관련 규정 도입(안)

본 연구는 사례 대상지 1개의 지역주민과 비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 서울시에 공동체정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사례가 부족
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초기 단계이므로 연구의 한계
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사례와 인식을 파악하여 공동체정원에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김광기, 2007, 「뒤르켐 & 베버: 사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김영사.
- 김상아·이현성·김주연, 202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미술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4), 65:217-226,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김정욱, 2010,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형성과정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성미산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권경득, 이주호, 안용주, 2015, 「SOC사업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참여(PI)제도 활용방안 연구: 일본 요코하마 북서선 도로건설 PI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3권 제4호, 213-244
- 니시아마 야스오, 니시아마 야에코, 2009,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사회적 기업에 의한 도시 재생”, 기문당, 김영훈, 김기수, 최광복 역,
- 노희영, 2012, “도시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 박명규, 2018,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 『Social Innovation Monitor』, 25, 사회적 가치연구원.
- 윤태범·양동수·윤기찬·최현선·김보미·한상은, 2017,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 이민우·이명식·정석원, 201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여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2(1), 117-128, 대한건축학회.
- 이석현, 2014, “공감의 도시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 미세움, 79-86.
- 이재열, 2018,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Social Innovation Monitor』, 16, 사회적 가치연구원.
- 이재열, 2019, “재무적 성과 위에 ‘사회적 가치’있다”, 『DBR 동아비즈니스리뷰』, 270.
- 이승현, 2016,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 확대에 따른 공원관리 민간참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석사학위논문.
- 임의영, 2009,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한국행정학보』, 43(2), 1-18, 서울행정학회.
- 서인석,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살펴보는 주민자치 허와 실:강요된 거버넌스의 실효성과 그 한계에

대한 소고, 「제주발전포럼」, 제60호, 16-33, 제주연구원.

손종필 외, 2017,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1호, 113-151.

변미리, 2016, 「시민참여형 미래를 만들기」, 2045 서울미래보고서 01, 서울연구원.

장원경, 이선우, 김광구, 2018,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스티스 제166호, 257-300.

채진해, 2016, “근교산으로서 관악산의 다원적 가치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채진해, 박재민, 김서린, 허윤경, 2021, 「코로나 시대, 근교산으로서 대모산에 대한 도시민의 공간이용, 행태 및 인식에 따른 가치 변화」, 2020 서울도시인문연구, 서울연구원.

齋藤純一, 2009 「민주적 공공성(公共性)」, 이음.

Appel I.·Grebe C.·Spitthöver M., 2011, **Aktuelle Garteninitiativen. Kleingärten und neue Gärten in deutschen Großstädten**, Kassel university press GmbH

Bittner, B., et al., 2008, “soziales_kapital”, **Wissenschaftliches journal österreichischer fachhochschul-studiengänge soziale arbeit**, 1.

Borgstedt, S., 2011, **Das Paradies vor der Haustür. Die Ursprünge einer Sehnsucht aus der Perspektive soziokultureller Trendforschung**. (In: Müller, C. (Hg.), 2011, **Urban Gardening. Über die Rückkehr der Gärten in die Stadt**. Oekom Verlag).

Dzionara, K., 1998, **Der Garten im alten Typten**. (In: Sarkowicz, H. (Hg.), 1998, **Die Geschichte der Gärten und Parks**. Insel Verlag).

Frank, S., 2011, **Mein Garten ist mein Herz. Eine Kulturgeschichte der Gärten in Deutschland**, DuMont.

Glaser, H., 1998, **Schreber- und Nutzgarten. Das Nützliche und das Schöne**. (In: Sarkowicz, H. (Hg.), 1998, **Die Geschichte der Gärten und Parks**. Insel Verlag).

Harth, A., and Scheller, G., 2010, **Soziologie in der Stadt- und Freiraumplanung. Analysen, Bedeutung und Perspektiv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Hauser, A. and Heyer, H., 2010, “Gärten”, **Historisches Lexikon der Schweiz**.

Healy, T. and Coté, S., 2004, **Vom Wohlergehen der Nationen. Die Rolle von Human- und Sozialkapital**, OECD.

Heckmann, H., 1998, **Walahfrid Strabos Hortulus – der ideale Klostergarten**. (In: Sarkowicz, H. (Hg.), 1998, **Die Geschichte der Gärten und Parks**, Insel Verlag).

Holl, A. and Meyer-Renschhausen E., 2000), **Die Wiederkehr der Gärten**.

Kleinlandwirtschaft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Studie- Verlag.

Iles, J., 2005, **The social role of community farms and gardens in the city**, (In: Viljoen, A. and Howe, J. (Hg.), 2005, **Continuous Productive Urban Landscapes: Designing Urban Agriculture for Sustainable Cities**. Routledge).

Jensen, J. and Wulf P. (Hg.), 1991, **Geschichte der Stadt Kiel**. Wachholtz Verlag.

Madlener, N., 2008, **Grüne Lernorte. Gemeinschaftsgärten in Berlin**, Ergon.

Madlener, N., 2009, "Doing Community: was sind Gemeinschaftsgärten?", **Sustainable Austria**, 46/2013, pp.3-4.

Müller, C., 2011, **Guerilla Gardening und andere Strategien der Aneign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Bergmann, M. and Lange B. (Hg.), 2011, **Eigensinnige Geographien. Städtische Raumaneignungen als Ausdruck gesellschaftlicher Teilhabe**.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Müller, C., 2011b, **Urban Gardening. Grüne Signaturen neuer urbaner Zivilisation**. (In: Müller, C. (Hg.), 2011, **Urban Gardening. Über die Rückkehr der Gärten in die Stadt**. Oekom Verlag).

Putnam, R. D., (Hg.), 2001, **Gesellschaft und Gemeinsinn. Sozialkapital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Verlag Bertelsmann-Stiftung.

Skolka, J., (Hg.), 1984, **Die andere Wirtschaft. Schwarzarbeit und Do-it-yourself in Österreich**, Signum-Verlag.

Steenbergen, C. and Wouter Reh, W., 2011, **Metropolitan Landscape Urban Parks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oth.

이로운넷, 양승희, 2020.12.17. "사회적 가치 기본법, 속성은 끝났다...제정 위한 가속페달 밟자",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72>

사회투자지원재단, 2018.04.16. "사회적 가치의 성과측정,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적회계의 성과와 과제", <https://ksif.kr/?p=12309>

이코노믹리뷰, 최진홍, 2019.10.02., "기업이 돈만 버는 시대는 끝, 사회적 가치는 생존의 문제-모든 사회가 이해 관계자",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662>

작은연구 좋은서울 20-14

사회적 가치 지향에 대한
참여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인식연구
-강동 공동체정원을 대상으로

발행인 유기영

발행일 2021년 5월 18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